朝鮮日報
夕刊 十一日(水)
本紙朝夕刊二十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利鎰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朝光」「女性」「少年」

金鶴香油

英首外相訪伊途中 佛首腦部와會見
英伊會談에備할兩國對策協議
會談後佛外務當局聲明

【巴里十日發同盟】羅馬訪問의途中에잇는 쳄벌린英首相及할리팍스外相一行은 十日午後五時四十三分 골다·아로우號로 巴里着驛에到着하엿다 驛頭에는 달라디에首相, 봉네外相, 필립프스駐佛英國大使等多數外 佛國朝野의名士多數가出迎하고 쳄벌린首相은 市民의歡呼裡에 自動車로 佛國外務省에向하야 同五時五十五分 外務省에到着 英國側쳄벌린首相 할리팍스外相 칼간次官 필립프스駐佛大使 佛國側달라디에首相 봉네外相 레제外務省事務總長 로샤政務局次長 브레시總務局長等出席下에 로톤드의室에서 英伊會談에備할 英佛兩國의方針에關하야 意見交換을 開始하엿다 會談은約一時間에亘하야 午後七時五分에終了하고 쳄벌린英首相一行은 달라디에首相 봉네外相의餞送裡에 午後七時二十分 巴里의리오驛出發急行列車로 一路羅馬에向하엿다 (寫眞上은 쳄英首相 下는 달佛首相)

【巴里十日發同盟】十日午後佛英兩國政府主腦會談終了後 佛國外務省은다음과가튼 公文을 發表하엿다 外務省에서 擧行된 英佛兩國政府의 쳄벌린英首相及 할리팍스外相은 羅馬訪問의途中 巴里着의機會를 利用하야 달라디에首相及 봉네外相과 會談하엿다 右會談에依하야 英佛兩國政府間에 이미確立된 一般的인共同態度는 다시 一層完全하게 確認되엿다 그러고 巴里政界消息通의 觀測에依하면 十日의會談은 도모지佛伊關係에關하야 意見을交換한 模樣인바 同問題에關하여서는 이미兩國政府에 外交機關을通하야 意見이 一致된것으로 同會談은 英伊會談의 直前再次 兩者의共同態度를確認한데 끄친것으로觀測되고잇다

事變處理根本策은 今後七相會議서
事務的處理는興亞院이中心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 政府更迭을 機會로 前內閣時代에서事變處理는 五相會議를 中心으로하든것을 고처서 事務的處理는 興亞院中心으로하고저 近近板垣陸相으로부터 平沼首相에게進言할 豫定이다 陸軍의要望하는바는 事變處理에 關한 根本方針은 昨年十一月三十日의御前會議에 依하야 確乎不動하게되엿스므로 今後는 右根本方針에 基하야 興亞院總裁及 副總裁會議를 中心으로 事務的處理를 進行하는一方 從來의 首相, 陸相, 海相, 外相, 藏相으로 構成하든 五相會議는 이를 存續하되 戰後國內處理問題의 重要性에 鑑하야 그對策을 審議키로하고 會議에 出席할 閣僚는 從來의 五相에 限定치안코 內相, 無任所相도 加할意向이다

各省政務官銓衡方針

【東京電話同盟】平沼內閣은陣容의整備一新을 圖謀하기爲하야各省政務官全部를 交替키로 된바그銓衡方針에 關하여서는 十日夜木戶內相이 關西로부터 歸京함을기다려 平沼首相 鹽野法相 木戶內相及櫻內 前田兩政黨出身閣僚等의 사이에서 貴族院方面으로부터의採用與否 또各政黨의割當等에關하야 協議決定한다음 右方針을 兩黨出身閣僚로부터各各黨內에傳하고 具體的 人選을進行하야 大體來週初頃에는 全部決定을 보도록意向이바 具體的人選에 關하여서는 政府로부터 格別한注文을하지안코 兩黨閣僚에 一任하고 貴族院으로부터서는 銓衡하지안케될模樣이다

平沼首相參內

【東京電話同盟】平沼首相은 十一日樞密院定例本會議參集에 압서 午前十時二十分宮中에 參內 天皇陛下께拜謁하고 企畫院總裁更迭을 內奏하엿다 그리고一般政務에 關하야도 奏上한바 여러가지 御下問에 奉答하고 御前을 退下하엿다

天皇陛下 葉山御用邸에行幸

【東京電話同盟】惶恐하옵게도 天皇陛下께옵서는 事變下御軍務를爲始 萬機를 御多端에 亘하옵시와 恒常가티 御宸襟을 어수럽게하옵시와 玉體를 安靜케하옵실 餘暇도 업스시엇다고 承聞되는바 嚴寒의此時 議會休會中을 틈타시와 來十四日부터 二十日까지 一週間 葉山御用邸에 御駐蹕하옵심은 十一日 吩附가 게시옵셧다 新春初 內閣更迭, 畑大將을爲始, 歸還將軍의賜謁 御陪食, 新舊閣僚御陪食等이잇서 年頭부터 御精勵하옵시든바 今番 行幸에際하옵서도 二十一日 議會休會再開前에 還幸하옵시와 宮中에서 萬機를 主宰하옵시려는 大御心에는 참으로 恐懼無極한 바이다

"英米等兩國의 援蔣借款不許"
中國政府聯合委員會聲明

【北京十日發同盟】中華民國臨時政府聯合委員會는 國共一派와 歐米와의 借款成立에 關하야 十日午後 右借款은 新平許與할수업다는旨의 重要聲明을發하엿다

【北京十日發同盟】英米兩國의援蔣借款供與說에 對하야 十日中國政府聯合委員會로부터 發表된 聲明은 現實을 認識치못하는英米兩國의 倒行逆施的 行爲에對하야 臨時 維新兩政府는 斷然承認할수업다는旨를 明白히하고 此種行爲가 重大化할境遇에는貿易統制其他 適當한 處置를取하지 안흘수업다고 新生中國民衆의意思를 闡明直截하게 闡明한點에서 注目된다 即臨時政府는北支新通貨體制擁護의 必要上 維新政府와도 協議할物資輸出統制에 向하야 着着準備를 進行하고잇는바 右는 全혀 金融通貨의健全性擁護要請에 基하야 特殊한 第三國利益을 阻害할과가튼 意圖는 秋毫도 存在치안흠은 明瞭한데 右英米兩國이 中國四億民衆의希望을 無視하고 援蔣借款을給與하고 그代償으로 貨物輸出等을企圖할時는 聯合委員會管下에서 新平衡軍한取締策을하지안흘수업는旨의決議를明示한것이다

新舊樞府議長 事務引繼

【東京電話同盟】近衛平沼新舊樞府議長事務引繼는 十一日 今年最初樞府定例參集後 午前十一時五分부터 宮城樞密院事務局에서行하엿다 이날近衛 原正副議長及各顧問官은 午前十時半 宮中休憩室에 參集하야 모든天皇陛下께 拜謁하고 天機를奉伺한後 繼續하야 休憩室에서 平沼首相他全閣僚와 初對面을하엿다 近衛、平沼新舊樞府議長은 顧問官及閣僚一同에 對하야 新任辭任人事를한後 近衛樞府議長, 平沼首相은 樞府事務局으로가서 約十分間 事務引繼를하고 村上書記官長以下 職員一同에 對하야 新舊議長으로부터 各其 人事를하엿다

企畫院總裁 靑木次長昇格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企畫院改組强化問題와 關連하야 企畫院總裁銓衡을 進行하고잇든바 十一日現在 企畫院次長 靑木一男氏를 起用키로決定 午後宮中에서 平沼首相侍立下에 親任式을擧行키로되엿다

任企畫院總裁 從四位勳三等 靑木一男
企畫院次長
依願免本官 企畫院總裁 瀧正雄

米、駐英佛大使招致 歐洲情勢를聽取
尨大國防豫算審議에參考次

【華盛頓十日發同盟】米國議會는 루스벨트大統領의 敎書에 基하야 平時未曾有의 尨大國防豫算의審議를 開始하기로된바 米國의 國防計畫은 歐洲情勢에 重大關連이 잇슴에 鑑하야 上下兩院의 關係委員은 十日現在駐英佛兩國의 케네기駐英 브릿트駐佛兩大使를招致 歐洲政局의 複雜한情勢 就中軍備協定成立後의 各國의 動向에 關하야 詳細한報告를聽取하엿다 席上 兩大使는 米國國防强化必要에關하여서는 何等勸告意見을述하지안핫스나 出席各委員은 兩大使의報告에依하야 暗澹한 歐洲의現情에關하야 多大한感銘을밧고 루스벨트大統領의 敎書에基한 再軍備促進의必要를 痛感하게된 模樣이다 一方 軍備反對의急先鋒인 나이、크라크兩上院議員은 右報告會終了後『何等反對意見에 變化는업다』고 言明하고 어디까지라도 軍擴反對의 意思를 表明하엿다

匈政府、承認을放送 防共陣營에凱歌

【羅馬十日發同盟】匈牙利의滿洲國承認은 十日午後三時半 라디오를 通하야 伊太利全國에放送되여 各方面에 센세이숀을起하엿다 防共陣營에 凱歌를 올렷다 威깃는側의 觀測에 依하면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及波蘭의 쳬코슬로바키아도 不遠匈牙利의 例를 보바더 追從하리라고하야 歐洲의 中立諸國 縱斷、獨伊를 中心으로 六個國의防共國家群이 出現하리라고 期待된다

陸鷲數十機編隊로 第五次敵都重慶痛爆
敵防空機關은寂寥無聞

【○○基地十日發同盟】中支軍十日午後七時發表 我陸軍航空隊服部、野本、柴田、相澤、佐瀨、鈴木、田中、井關、桑原、原田、酒本、古林各部隊는 第五次敵首都 重慶爆擊次 十日早朝快晴한 上空에 數十機翼翼을連하야 大編隊群으로써 一路重慶空襲에 向하엿다 이날重慶附近에는斷雲이잇서雲間으로부터 重慶을 確認하고 正確한 爆擊을敢行, 敵軍事施設에 大損害를 준同時에 敵의 心臟을 萎縮케하고 大成功裡에 日沒頃 全機無事히 歸還하엿다 그리고 敵側은紛紛한 敵首都防空機關은 寂寥하야 소래가업시 我空中勇士에게 全혀威壓되여 겨우 四機가 離陸逃避하는것을 보앗슬뿐이다

004111

生產力擴充案 議會再開前까지決定

【東京電話同盟】物資動員에伴한生產力擴充三個年計畫案에 對하여는 임의企畫院에서 立案中이든바 十日閣議에서 靑木企畫院次長으로부터 計畫案內容說明을 聽取하엿는바 時間關係로 中途에서說明을 끄첫스므로 三日定例閣議或은 十四日臨時閣議를열고 남은 說明을 聽取하고 이에 基하야 閣議決定을 急히하기로 되엿는데 大體로議會再開까지에는 決定할方針이다

興亞院文化部長 松村醫博士로決定

【東京電話同盟】缺員中이던 興亞院文化部長에는 當面의 事業이衛生施設確立을 重點으로하는 關係上 醫學界에서 適任者를物色한結果 千葉醫科大學敎授 松村醫博士를 候補로 定하야同博士及 千葉醫大敎授會의 承認을 어덧스므로 十日閣議에 附議左와如히 決定한後 上奏御裁可를 仰하야 發令하기로 되엿다

任興亞院文化部長 兼千葉醫科大學敎授 醫學博士 松村○
興亞院總務長官 柳川平助
文化部長事務取扱을免함

內務首腦部異動

【東京電話同盟】木戶內相의 最初人事異動인 內務省首腦部及地方長官異動은 압서 舘內務次官을中心으로 厚生省과의 交流人事關係上 岡田厚生次官도함께 內銓衡을進行 十日新任奉告參拜를 終了하고歸京한 木戶內相을마저 正式으로 決定키로 되엿다 그리고 十一日午後 臨時閣議에 附議正式決定 左와如히 秋田、鳥取兩縣知事及 保安課長(勅任)後任은 繼續하야 銓衡을 進行한結果 十一日前記異動과함게 臨時閣議에 附議決定할터이다

岡山縣知事 菅重藏

警視總監에 警保局長 本間精
岡山縣知事에 土木局長 安藤狂四郞
警保局長에 茨城縣知事 挾間茂
土木局長에 和歌山縣知事 吉永時次
茨城縣知事에 鳥取縣知事 立田淸辰
千葉縣知事에 秋田縣知事 佐佐木芳遷
厚生省體力局長에 警保局保安課長 淸水重夫
和歌山縣知事에 警視總監 安倍源基

千葉縣知事 多久安信
依願免本官(各通)

【東京電話同盟】木戶新內相의初人事인 內務異動中 殘餘된 秋田、鳥取兩縣知事後任及 이에伴한 異動은 十一日午後 左와如히決定 同日午後 臨時閣議에附議發令될터이다

北海道總務部長 留岡幸男
任秋田縣知事(二等) 警視廳警務部長 岩上夫美雄
任北海道總務部長(二等) 京都府總務部長 橋本淸吉
任警保局保安課長(二等) 長崎縣總務部長 副見喬雄
任鳥取縣知事(二等) 大阪府警察部長 荒木義夫
任警視廳警務部長(二等)

依願免本官 大學總長會議開催 時局協力을要請

【東京電話同盟】荒木文相은 平賀東大、羽田京大兩總長의 新任을機會로 戰時下의 各大學의時局協力을 要請하고저 來十四日午後二時文相官邸에 各帝大總長會議를 十六日午後二時부터 亦是文相官邸에서 單科大學學長會議를 開催키로되엿다 이大學總長會議는 그抱負를 成就한 荒木文相이 드듸여 積極的으로大學의 戰時下 非常時局에의關한具體化에 거름을 내어드딘것으로서注目된다

時事解說
蘇支軍事援助諒解

汪精衛의國府脫出과 抗日國民政府의赤化가 傳하고잇는此際 十日 重慶에達한U·P電報는 國民政府立法院長孫科는 十日 新聞記者와의會見席上 蘇支間에 軍事援助의諒解가存在한다는旨를 發表하엿다고傳하고 同時에 그內容으로 一、國際聯盟이 有效한 對日軍事制裁의實施를 決議할境遇 二、世界의諸國中 적어도英米佛을 包含한 四個國이 聯合하야 對日行動을 이르키는境遇 三、日本이蘇聯領土를攻擊한境遇에는 蘇聯政府는 支那側에對하야 出兵援助할것을 約束하엿다고한다。

◇

蘇支軍事密約說은 昨年孫科의 蘇都訪問以來 數次나 傳한바이며 日支事變以來 蘇聯의 人的物的의 對支援助는 世界周知의일이요、日支事變의長期化는 蘇聯의期待하는바와 一致되는것이어서 今次의 孫科의發表는 아는程度까지 事實이아닌가한다 또昨年蘇支密約說이傳한時의 事情을보면 蘇聯은 援助交換條件으로 蘇支國境의共同防衛 共產軍에의武器供給 新疆省의事에對한 蘇聯의特殊權益承認 國府行政機構의改革을 要求하고 國府는當初에는 蘇聯의 要求를拒絕하엿스나 武漢의危機를아페두고는 不得已以上의 條件을受諾하엿다 하엿스니 今日의情勢로考察하면 蘇支兩國에 모두同種의 諒解가成立키 쉬운 基礎가 一層成長하엿다고보겟다。

◇

그러나 今次에 發表된蘇聯의對支出兵援助의 條件은 三項이모두實現을想像키 어려운것이다 國際聯盟이 今日새삼스럽게 對日軍事制裁를 決議할수업다는것은 이미 證明된것이요、또近者英米佛의 對支援助가 幾分 積極化되엇다고는 하나 現下의 歐洲政局의 關係上 英米佛을 包含한 四個國이 共同하야 對日實際行動을 이르키리라고 想像키어렵다 끄트로 日本의 蘇聯領土攻擊이 問題인바 日蘇漁業條約問題가 現在懸案으로 잇다고는 하나 日支事變이 進行過程에잇고 蘇聯이 挑發하지안는限 帝國이 蘇聯에 進攻할 理는 업다 以上과가티 考察하면 蘇支間에以上의 諒解가 잇다하더라도 同諒解의實際發効는 豫想할수업는것이다。

海鷲、奧地敵空軍과 最後的大決戰祈願

【東京電話同盟】昭和十四年의新春 猛烈한季節風과 寒氣를무릅쓰고 中南支空에서 西南北角의空中戰場에 後續을 默默히 繼續하고잇는 我無敵 海의荒鷲群의 큰話題는 蔣介石空軍이 再建을完成하야 我空軍의威力아래 敗退할 最後가 될 空中의 一大決戰에 進出하느냐 안는냐 하는것으로 空中聖戰一年有半 最初의 空中決戰은 十二年 十一月 十九日의 南京大空中戰에서 비롯하야 十三年一月 四日의 漢口空中戰 同月七日及 二月二十五日의 南昌大空中戰이 繼續되고 또 我空軍의 渡洋爆擊等 超人的인 攻擊에對하야 潰滅한 支那空軍은 一千餘機에達하고 그後 蔣介石은 戰鬪機를 主力으로 消極的인 防禦的 邀擊에終始한바 이것도 昨年四月二十九日 天長節의 漢口空中戰에 五十四機 同 南昌에서 五十一機 七月四日의 南昌에서 五十一機 八月三日 漢口에서 三十二機等의 記錄的大量擊墜를 當하엿다 그後 八月十六日의 衡陽會戰에 E十五型 十六型 카디스호一크에 新參의佛國製 戰鬪機 데보아티一누의 混成部隊는 十六機 擊墜되고 同三十日 南雄飛行場에서 데보아티一누 十七機 九月二十八日昆明에서 六機를擊墜當한以來 漢口 廣東의 陷落에 뒤이어 沈默하고 空中戰이 업섯다 그間奧地에 遁入한 敵空軍의 根據地로보이는 廣西의 柳州 南寧 桂林 貴州省 貴陽 雲南省 昆明 四川省成都 陝西省西安 甘肅省蘭州等으로 雲南만을남기고 餘地업시 攻擊을 퍼부어 敵機出來를 誘引하여도 敵機는 出來하지안핫다 十三年末 海軍省의 公表에依하면 敵機에준 損害는確實 不確實合計一千五百三十二機에達하고 蔣介石이 實力만으로 整備한 中央空軍의 殘骸와 養成한 搭乘者는 確實히 殲滅 次의 空中決戰에서 擊滅하야 벌써업서진것은 事實인바 昨年七月蘇聯으로부터 器材와同時에 約三百名의 搭乘員이 成都、重慶에와잇고 當時佛領印度、河內經由로 英佛의 飛行機器材가亦是運搬되엇스며 또駐佛英兩大使는 昨年十一月末 蔣介石의訓電에接하고 南國에서 約二百名의飛行士募集을 各飛行機製造會社를通하야 盛히行한事實이잇고 이募集에依하야어든飛行士는今年一月末까지에 雲南經由蔣介石의 陣營에派遣되기로되엿다 以上의事實을 綜合하여보면 奧地遁入의蔣介石은 今年二月以降으로 蘇聯英佛米의 混成機로 組織한約五百名의 外人部隊와 我軍에攻擊되어 死地를免하야 生存한支那人飛行士若干 새로히速成되엇슬搭乘員을 加하야 雲南近處에서再再建을 秘密히 計畫하고잇지안나한다 이와가튼 關係로 各基地의 海荒鷲群은 雲南上空近處에서 相對가될에 不足이업는 外人部隊主力의 蔣空軍을 一擧에 最後的墓穴로 擊入케하려고 再次의 大決戰을 빌고잇다

汪의隱身處
河內西北東京州호텔

【河內十日發同盟】汪精衛가지난 二十六日부터 昨九日까지 避居해잇든 河內郊外『탐다오』는 河內西北八十一粁되는 東京平野에 隆起한 海拔一千米의 獨立山으로 東京州唯一의避暑地인데 眺望이 絶佳하기로 有名하다 汪精衛는 이곳 호텔、카스카드·달르잔에 同志數名과 함께 避身하야 世界的衝動을준 和平聲明과 國府에의公開狀等도 모두이곳에서 發表한것으로 同호텔은 冬季中은 休業을하야 出入하는者가업는때문에 絶好한 隱身處로 選擇한後 同호텔居室 鐵扉는 晝間도密閉하고 燈火도 外部에 새이지안토록하엿으며 또恒常호텔 前에는 警戒人一人이 서잇서身邊을 守護하고잇다 夫人과令息도 一時이곳에 잇섯스나 한발먼저 지난 五日香港으로 向하얏다

五中全會開會 準備漸次完成

【上海十一日發同盟】來二十日擧行키로 決定된 五中全會는 汪精衛脫出事件後의 國民政府及國民黨內의 動向을 如實히表示하는 바로메터로서 매우興味를끄는바 十一日重慶에잇는 中央執行委員數는 法定數에 達하야五中全會開會準備는 거의 完成되엿다고報道하고잇다

長鼓峯附近에 蘇聯兵尙今出沒
佛婦人記者團談

【淸津電話同盟】外國人婦人記者로서最初의 張鼓峯戰跡視察한 佛國西프치史(五一)는 十日午後一時三十分 羅津으로부터 來淸、國際列車에서 少憩後 同二時五十分淸津驛發列車로 新京에向하얏는데 世界戰史에도 일직보지못하엿다고하는 激戰을 演한 張鼓峯戰跡을 通하야 國境에强盛한 妖雲은 同女史의눈에 果然 如何히 反映되엿는가 女史는 去八日 小林南陽署長의 案內로 昨夏世界戰史에 特筆할 張鼓峯 激戰地를 視察하얏다 蘇聯兵은 至今도 張鼓峯附近에

匈政府一月中에 國際聯盟脫退乎

【羅馬十日發同盟】匈牙利政府는 日本과의間에 文化協定을 締結하고 또十日 滿洲國을 正式承認하야 積極的으로 日獨伊陣營에의 接近傾向을 表示하여 온바 十日 確實한側에의 情報에依하면 匈牙利政府는 國際聯盟으로부터 脫退키로되여 一月中에 聯盟에對하야 脫退를通告할豫定이라고한다

白鳥駐伊大使 信任狀捧呈

【羅馬十日發同盟】新任駐伊大使白鳥敏夫氏는 十日午前十時기치宮에伺候 伊太利國王에디오피아皇帝빅토리아·임마누엘三世陛下께對하야 信任狀을捧呈하엿다

蘇聯哈爾濱總領事 突然莫府에撤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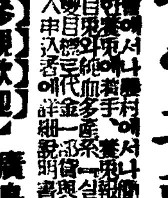
【哈爾濱十日發同盟】滿蘇兩國折衝의斡旋者인滿洲國駐在蘇聯總領事代理코스브·스·오프氏는 十日午前十時半發列車로 哈爾濱莫斯科로歸還하엿다 同氏의 突然歸國은 總領事館을 縮少할前提로보인다

八面鋒

◇新年度 中等學校擴充豫算을 大削減하야 學級增設이 全然無望케되엇다고。
◇敎學刷新은 南總督의 五大政綱의 하나、現實로 보아서도 中等校新設及 增級은 絶對的。
◇大藏省에서 朝鮮敎育事情을 잘모를것도 容或無怪나、折衝간 總督府當局 좀더 强하게 對하지 못햇던가。
◇다른 豫算은 削減하고라도 敎育豫算만은 그대로 살리움이如何。
◇所謂 國民再組織案은 官製로는 無意味라고 木戶內相 言明。
◇厚生相으로 잇슬때는 木戶氏무어이라고 말햇던고?
◇昨年中 朝鮮의 企業資本은 急膨脹하야 新設會社 五百七十四、拂込資本 一億圓이라고。
◇朝鮮經濟界가 풍성풍성할것도 當然。
◇그러나 小資本의 活動은 依然 萎微하니 그것이 딱한일。

人事·集會

◆川島義之大將(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總裁)十四日午後一時三十五分京城驛着『아가쓰기』로着任豫定


銀狐兎、안고라兎
【參觀歡迎】廣島縣安佐郡龜山村 龜山農園養兎研究所

工業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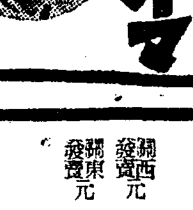
しもやけに不可飲 ¥20·30·50

潮湯 開業 眞夏の如く暖く 皆樣の御來遊を御待します (年中無休)
仁川松島 潮湯ホテル 電話四七七番

朝報案內
男女
讓店
革の素
有給社員招聘
大正生命 日本敎育生命 平壤支部 電話三三〇二番

最新流行高級 ラシャオーバー大安賣

實用向流行型 黑紺ラシャ片前型オーバ 上品 十圓五十錢 (總裏付)
大衆向流行型 黑紺厚ラシャ片前型オーバ 極上品 十二圓五十錢 (總裏付)
實用向流行型 黑紺ラシャ兩前型オーバ 上品 十一圓五十錢 (總裏付)
大衆向流行型 黑紺厚ラシャ兩前型オーバ 極上品 十三圓八十錢 (總裏付)
大衆向流行型 霜降ラシャ片前型オーバ 最上品 十五圓五十錢 (總裏付)
高級紳士向 霜降スコッチ片前型オーバ 最優品 十七圓八十錢 (總裏付)
大衆向流行型 霜降ラシャ兩前型オーバ 最上品 十六圓五十錢 (總裏付)
高級紳士型 霜降スコッチ兩前型オーバ 特品 十八圓五十錢 (總裏付)
○ハガキにて御注文次第直ちに代金引替小包で送ります
名古屋市東區滔水町局前 松山合名會社 電話東大二一九番 振替名古屋一一五一一番

無條件壓倒盤
流行歌 울고넘은茂山嶺 朴貞林 태평레코一드


エフェドリン「ナガヰ」가 나 리 도 혜 에

기침 천식
マルピーロE Ⓟ
治療藥의選擇이先決
痔疾에걸리면速히加療를하야고칠것 그러나痔疾藥은 잘 選擇하야 使用하지안흐면 모처럼加療해도藥의選擇이잘못되여서는 고연히費用만 만코 不愉快한증상보다도 經濟的으로만 損失일뿐이나라健康上憂慮할일입니다 アルコン은獨特한 新方法으로製作가만든 痔疾者待望의鎭痛止血、殺菌、防腐의效能을가진 痔疾藥입니다
アルコン型
包裝 半藥 軟膏
(全國到處藥店에잇습니다)
發賣元 Ⓟ 大日本製藥株式會社 本店 大阪道修町 支店 東京本町

치질
藥學博士 長井長義氏 創製
喘息、鎭咳藥으로서 發作의 豫防과 鎭靜 苦悶의 消退等에 本劑는 効果를 나타낼뿐만 아니라 治療上極히 安全하고 投與의 便이잇스며 또한 持續的인 作用을 有합니다
適應症 喘息、一般咳嗽 氣管支加答兒、百日咳、夜尿症 蕁麻疹、盜汗
包裝 一〇錠 二〇錠 五〇錠 一〇〇錠 五〇〇錠 粉末、散劑、注射液잇습
類似品잇스니 買入時는 반드시Ⓟ의印과エフェドリン「ナガヰ」의文字에注意하시고 指定해주십시요
製造元 大日本製藥株式會社 本店 大阪道修町三 支店 東京本町二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小西新兵衛商店
アルエコルシ 에 아 루 곤

雪中金剛山武裝檢擧陣

類似宗敎秘密結社 三十八名一網捕盡

某種行動計畫中인것을發覺

巡査部長一名은殉職

금강산을 배경으로하는 중서도굴당의 대검거가잇슨이후 정초에 또다시 금강산 영봉 표고(標高)일천이백미돌의 응산(鷹山)을 무대로하는 모종의 불온계획을가진 유사종교 단체의 비밀결사단체를 습격 섬혼여덜명을 검거하엿다

강원도 통천(通川)경찰서에서는 금강산 회양(淮陽)통천등지에잇는 응산에 ○○○의 불온계획아래 모종행동을 목적으로하는 유사종교비밀결사가 잇는것을 탐지하고 지난오일 통서 손(孫)사법주임이하 스무명의 무장경관대가 밤중에 출동하엿다 그리하야 일천이백미돌이나되는 노픈봉오리를향하야 일제 행동을개시 눈이 다섯자나차히고 영하삼십도의 혹한에 눈보래바람과 마주싸우며 룡쟁 기픈밤중에 봉오리에 도착하엿다 그래가지고 유일새벽에 눈때문에 알길이 밝은것을 이용하야 이들이 숨어잇는『비밀의집』을습격 섬혼여덜명을 일망타진하엿다 이들은 모두통천서에 인치하고 방금엄중취조를 개시하엿는데 아직 결사의 확실한내용과 명칭은 알수업다

殉職巡査部長 屍體搜査繼續

그리고 이번 검거대원중 통천서원 순사부장 상전작일(上田作一)씨는 응산꼭대기로부터 오백미돌의 분수령(分水嶺)에서 발아래 눈덩이가 무너지는바람에 그대로 휩쓸려 행방불명이되엿다 동서 회양두경찰서원과 소방조원등의 수사대를 비상소집하야 수사한결과 상전순사부장이 행방불명된지점에는 그의유도(柔道)이단을 설명하는 검은띠가 발견되엿고 계속수사한결과 십일에이르러 응산꼭대기에서 바루 날려러지가된 골짜기에 상전순사부장인듯한 시체한개를발견하엿다 그러나 위낙발을 부칠수업서 위험하야 끄러올리지이어서 방금 방조대와 사닥다리를 이용하야 끄러올릴작업을 계속중이다

逃走者도相當多數 事件全貌아직不明

失踪警官의搜査가急하다고 警務局森事務官談

이에대하야 경무국 삼사무관(森事務官)은 다음과가티말한다

금강산 유사종교단체 사건은 아직 상세한 보고가 업스므로 그내용은 방금취조중으로 소위 교도의 성명조차 알수가 업다 피의자중에 검거된자도 상당히 잇스나 도주한자도 상당히만흔 모양이다 이번사건은 피의자를 수사하러갓든 통천경찰서 상전(上田)순사부장이 행방불명된지가 이미 일주일이나 되는터이므로 음모단에 대한것을 떠날때가아니라 상전부장의 소재수사가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하여간 산간벽지 주민들은 순박한만치 선동이 잘될뿐아니라 교통기타 여러가지관계로경찰의손이 잘밋치지못하게되기때문에 이따위 사건이발생하드래도 신속히 알기어려운 유감이잇는 것이다

손(孫)세업시절명되엿다 일행은친척의집에 조상을갓다 도라가는길에 참화를입은것이라고한다

列車遲刻防止會議

鐵道局에서各地關係者를召集

요지음 북경(北京)부산사이의 국제급행렬차를 비롯하야 경부경의 경원 함경등각선의급행렬차가모두정각보다 훨신늦게 도착되며 다른열차들은 판부연나선과의연락에 곤난을 이르키고잇서서 얼마전에는 부산잔교에서여객들이 철도당국에 대하야 큰소동을 이르킨일까지 잇섯는데 철도국에서는 어떠케해서든지열차지연을 방지하야 조선철도의 명예를회복하고저오는 십삼일사이틀동안에 각철도사무소장 각개량사무소장과 운전주임을 철도국에 소집하야 열차지연방지회의를 열기로되엿다

현재경부경의 두간선에는 복선공사를하고잇는터이고 또한각선에 여객이 만허서 승강시간이만히 걸리기때문에 자연히 연착되는것이라하나 그러한관계의정도를넘처서거의 매일가티 늦게도착하고잇는 현상이므로 이번그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야열차의 정각발착을 회복하고저하는것이라한다

人夫들이獻金

푼푼이모아서

경의선북선공사『런넬』작업장으로 대현정(大峴町)에 사무소를둔 남견조(楠見組)의인부 약일천명은 출정장병을 위문하려고 각기오전내지 일원씩을추렴하야 그간일백이십원사십삼전이 모엿스므로 십일 남견조의 서무 전중수삼(田中守三)씨가이것을 서대문서에 제출하야 서원을감격케하고잇다

浮石郵便所

電信電話取扱

경북영주(榮州)부석(浮石)우편소에서는 십륙일부터 전신과 전화통화사무를 개시한다고한다

代書料改正

京畿道에서立案

대서사(代書士)취체규측의 개정에 뒤를이어 경기도보안과에서는 이기회에 불합리한 종래의 대서료금규정에손을대여 전반적인 개정을 단행하는동시에 정원도 늘리기로내정 방금 여기에대한 입안을 급히하고잇서 불일내로 발포케 될터이라한다 입안중인 새규정의 개정요항은 다음과갓다

一、料金=종래에는 대서료금은 건별제도(件別制度)와 매수제도(枚數制度)를 되는대로 혼용하야오든것을 이제부터는매수에중점을두고약간의예외를 제외하고서는미농지한장에얼마 반지한장에얼마 이러케 매수제도로통일하야 종래의 요금에는 구속됨이업시 다음과가티결정된다

美濃紙一枚 二十錢以下 同半枚 十錢以下 半紙一枚 十五錢以下 同半枚 八錢以下 簡單한圖面이면 五十錢以下 詳細한圖面이면 一圓以下 葉書 五錢(代書料包含) 書面 十錢

鳥居子爵夫妻

電車에衝突卽死

【東京電話同盟】 십일오후여섯시반 국정구륙번정(麴町區六番丁)조거충일(鳥居忠一)자작은친히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관자(寬子)부인과 영제 삼택충강(三宅忠强)씨와함께 삽곡구번곡원정(澁谷區幡ヶ谷原町)경왕전차(京王電車)건널목에 이르럿슬지음 차천(此川)을떠나 신숙(新宿)으로 진행하던 전차와충돌 부처는즉사하고 영제는중상

추위는물러갓다

朝鮮附近低氣壓、東쪽으로移動

추위는 한고비너머갓다 지난 유일 경성지방의 최저온도는 영하십구도오분으로 삼년만에 처음되는 추위엿섯는데 작십일부터는 점점추위가 누그러저가고잇다 이에대하야 경성측후소의 말을드르면 다음과갓다

십일의 최저온도는 영하오도 구분이오 오늘아침은 칠도이분이다 어제 황해와 조선부근에잇든 저기압은 동쪽으로이동하여버리고 현재 몽고에 고기압이 잇서 이것이 조선방면으로 퍼지고잇서서 심하지는아니하나 다시 추위가 올것이 예상되며 조선은 오늘부터 다소 추위가 심하여질것으로보아 이번추위는 동해안일대가 가장심하게될것이라한다

課外"敎材" 法廷의女人

今日、嬰兒殺害한女給公判에 女敎員女學生千餘名含淚傍聽

부내 광철정(廣鐵町)이백륙십이번지 낙원장(樂園莊)『카페ー』『미야꼬』의여급 야촌(野村)『미야꼬』에관한 살인피고사건의 공판은 십일오전십시부터 경성지방법원대법정에서 부옥(釜屋)재판장주심으로 열렷다 이날은 기보한바와가티 부내소학교여교원이백여명이 방청을왓는데 이들을놀란 각소학교교장 경성부 지곡(池谷)지학을 비롯하야 학생단체 여급등 천여명이몰려와서 대법정박게는 근래희유의 사람바다를 이루엇섯다

피고『미야꼬』는 산구현하관시(山口縣下關市)출생으로 세살때 어머니를일코 계모슬하에자라던중 일곱살때 조선에 건너와서 인천에살며 그곳고등녀학교를 졸업한후 모운송회사여사무원이 되엿섯스나 생활난으로 소화십이년팔월부터 서울에와서 여급생활을한것이다 피고는 협부소에서주는 고무신만을벗는다면 화황한『산데리야』미려서 순남을기대하던때의 회려한의복이고『마덴르』가 더한층『휴』에서의생활을 연상케하엿다

재『어린애를 죽일때 불상한생각이 아니더냐』

피『생각할시간이업섯습니다』

재『지금도 죄동(罪動)이외가치 살생각이잇느냐』

피『그가 나를버리지안는다면 하며 어린것은 죽엿스나 정부에대한 연정만은 버리지안햇다고 진술하엿스며 오후두시반쯤 이동(伊東)검사로부터 징역삼년 구형이잇슨다음 매정하엿는데 언도는 오는십칠일에잇다

光陽에感冒盛行

【光陽】금년동기 광양지방에는 한동안 따뜻하던바 지난삼일부터 돌연추워지는 한편 기온이 급하하야 종래에보기드믄 추위로 감기가 성행하야 각가정에서 의사를 부르기에 분주하다고한다

鑛山出願處分促進

速許願의趣旨를徹底

公益照會改善、係官增加、能率增進을圖하야

今年中六千件을處分豫定

광산경기를 반영하야 십삼년중에 내고잇서서 광산과에서도이것의정리로 눈코를뜰수업는 현상인 십삼년말의 미처분건수는 사만이천건에 달하고 십사년중의 출원예정일만오천을 가산하면 실로오만칠천건의 출원이 싸혀잇스므로 광산과에서는 이대책을 강구한결과 다음과가튼 방침으로 십사년중에 약육천건을 처분하기로되엿다

一、처분조사의양계연락을 긴밀히할것

二、속허원출이잇슬때는 위선처분을지행시키면서 무근것을이와병행하야 출원순서대로진행시킬것

三、속허원의 처지절서를 도모할것

四、승락조사의능율을 증진시키기위하야 도처별(圖籍別)의전용대장을 작성할것

五、도지사에대한 공익장해의조회변을 개선하고이것을촉진할것등으로서 그동안소진기타의 고장때문에 사서명가량으로된원되엿던 처분계를사십명으로 증원하야 사무를빨리정리할터이라한다

少年窃盜團

성북정삼선정서대문서원이 부내아현정(阿峴町)산八이번지 토막에 근거를둔 이봉하(李奉夏) 한영식(韓永植) 배교식(裵敎植) 김병철(金炳徹)등네명의 소년절도단을 붓잡아다가 취조중인데 이들은 구일 오후세시쯤 대화정(大和町)삼정목육십삼번지 석탄상 서단국자(西端菊子)의 집에드러가 사진기두개 금반지、시계등 약칠백원어치를 훔친사실을 자백하엿다 또한 이들은 작년가을부터 욱정(旭町)남산정(南山町)일대로 도라다니며 빈집을 뒤저서 축음기 반지등을 훔쳐다는데 어름기 반지등을 훔쳣다는데 어

그의 피해는 약삼천원가량된다고한다 더욱 놀라운것은 이들네명이 모두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지못한것을 내세우며 징역은 안간다는 생각으로 조금도 회개하는눈치가 보이지안는다는것이다

"설"노리"計算表"

接客業者의收入增加

정월초하루부터 일주일동안 시하정초의 번화가(繁華街)경기는 어떠하엿나하고 본정경찰서 경제계에서 관내의 극장 유곽 요리집등의 매상고를 조사한바 대략 다음과가튼 통계를 어덧는데 작년에비교하야 모두 수입이 증가되여잇다

즉 조선사람측의 요리집은 원과매상고가 작년보다 이할오분증가며 유곽은 이할팔분 영화상설관은 사할이오 기생들의 수입도 일할가량 증가하엿다

"酒酊뱅이高喊과 주책업는레ー코드"

=듯다못해= 慶雲町民呼訴

밤낮의 구별이업시 주정뱅이의노래와 유성기소리가 끄치지 안흐니 이것을 좀취체해달라는 경운정(慶雲町)주민들의 진정ー 시내경운정 중학동 부근의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는 요리집 정부근주민들의 진정서가 드러왓는데 내용을 보면 경운정 구십륙번지 정자옥(亭子屋)지적 요리집에서 밤낮으로 레코ー드를 틀어 키고잇습니다 부근의 안녕방해는말할것도 업고 정신이 사나워서 견디기곤난하니 그러지못하도록 경찰에서 취체해달라는것이엇다 동서에서는 즉시 정자옥주인을 호출하야 금후에는 그러지못하도록 엄달하엿다

臺邊火災

【木浦】 토목관구(土木管區)사무소에서 출화하야 회재로 전소되엿다 이건물은재작년가을에 새로지은것으로 손해는 일만원가량이라한다 발화원인은 아직 밝혀지지안허서 목포서에서는 방금 엄중조사중이다

"平和産業犧牲結果"

市內日傭雇人失業大幅激增

경성부에서 조사한 작년시월말현재 부내실업상황의 결과를보면 급료생활자는 (월수이백원미만) 조사인원 오만칠천이백삼십이명에 대하야 실업자는 일천삼백삼십이명으로 실업률은 이분삼리로 재작년의 이분오리에 비하야 적어젓다 그러나 품팔이노동자는 조사인원 삼만륙백일명에 대하야 실업자는 일천구백사십오명으로 일할사리로 재작년의 오분오리에 비하야 팔분오리의격증이다 급료생활자의 취직상황이 다소 조와진것은 사변관계의사업회사의신설 확장에 사무원이 만히 소용된결과이며 품팔이 노동자의 실업자격증은 히생된 평화산업종업원의 실업기타노동자는 토목공사기타 각종공사가사변관계로 중지된결과로보혀 이조사는 각방면으로 주목할만한자료를 제공하고잇다

退職看守가

恩給證書를僞造

공문서위조사기 혐의로 퇴직간수가잇다ー용정경찰서에서는 십일에청엽정(靑葉町)일정목에서살아(三野)모를 인치엄중한취조를하고잇는데 삼야는 퇴직간수로서 최근은급재정서(恩給裁定書)를 위조하야가지고 이것을 죽첨정(竹添町)이정목 서원(西原)이라는 고리대금업자에게 저당입제(立替)한것이 탈로되엿다한다

醉中에黃泉行

개천에빠저얼어죽어

십일오후열한시반쯤 부내관동정(館洞町)육십구번지앞개천에 조선인남자 한명이 빠저죽은것을 동행인이 발견하고 서대문서에 계출하엿는데 죽은사람은 공덕정(孔德町)산백륙십구번지 석탄장사 안상기(安相基)(三〇)로 이날밤 이부근술집에서 술이대취하야 집으로도라가다가 기괴가 일흡자가량되는 전기개천에 빠젓는데 술김에 바지를벗서버리고 그냥어러죽고만것이라한다

朝鮮十三道內 蹴協各支部設置

ー新春、蹴球協會의計畫ー

全日本蹴球界에重鎭인 朝鮮蹴球協會에서는 新春을마지한 첫計畫으로 十三道에支部를設置하야 蹴球를普及하게할方針이요 健全한蹴球發展을目標로 各地에散在한細胞團體를總網羅하야 名實相副한 斯界의指導團體의確立을 期하기로되엿는데 既存團體인 中央、南朝鮮、北朝鮮、西朝鮮等四支部는 各己道名에따라 名稱을變更하는同時에 새로히 創立될 咸北、平北、慶北、全南、全北、黃海、江原、忠北、忠南等의 九支部는 不日內로當協會에서 選定한各道內의支部設置委員에게 選衡委囑하야 各道體育協會의指示대로組織을完成케할터인데 以上計畫은 朝鮮體育協會의 方針에따르는 스포ー츠統制策의하나이다

全日本스키ー豫選

來廿八日、三防서開催

【元山】第十七回全日本스키ー選手權大會朝鮮豫選會 第九回全朝鮮스키ー選手權大會의 諸般事項을決定할 朝鮮스키ー聯盟代表委員會는 지난七日元山公會堂에서 열고 協議한結果 前記選手權大會는 來二十八、九兩日間 三防에서 開催하기로되엿는데 參加申請期는 二十二日까지라하며 從來에잇서서는 前記大會에 優勝한代表를 日本內地大會에 出場을 시키지못하엿스나 이번에는 出場하도록 決定되엿다한다

籠球代表得點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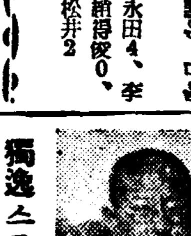
征蕭球團이 지난八日밤에 行한 엔드ー마스軍과의 對戰에잇서서 日本軍의 個人得點은 다음과갓다

橫山4、吳晉錫10、永田4、李好善6、張利爾7、趙得俊0、宗像3、金程信1、松井2

金河吉君

千五百에二着

全國中等氷上開幕



【東海당크에서松都中學敎員敏鎬特發電】第九回全國中等氷上大會 第一日의 千五百米는 十一日午前十一時부터 세파랫코ー스에서 行한바 開城松都中學의 金河吉君이 一分卅三秒로 第二位를占하엿다 (寫眞은 金河吉君)

獨逸스포ー츠界統制

【同盟伯林九日發】友邦獨逸政府에서는 體育國策에準하야 國家의 人的資源인 國民體位向上에 極力留意하야 着着効果를 거두고잇는 이때에 또다시 競技界統制에 進出하기로決定되여 各國의注目을 이끌고잇다 獨逸競技界는 今後一切 體力局의 統制下에두고 獨逸選手의 海外遠征 또는 外國人의 國內競技會參加等 모두 體力局長官의 許可에依하야 決定하기로되엿다

법이란것은 사람을 살리는것이냐 죽이는것이냐? ▲대개재판의 결과를보면 검사의 구형보다 재판장의판결이헐하다 그래서 이런예를들어가지고 법은사람을 살리는것이라고도 세상사람은말한다▲사실법이란것은 세상의질서를 유지하야 사람을잘살게하기위하야 만들어진것이라 의례히 사람을 살리는것이 법의 본의인것만은 틀림업는 것이로되 그 운용이 잘못되면 사람을죽이는 결과가 되는터일할것업다 ▲그러데 법이란것을보면 모두가 생사람을 두고 못미덥고 의심스러워서만 들어진것이 아닌것이 어다고 볼것이 거의전부라고해서 과언이 안될것이다 ▲그런까닭에 법은 만들때나 쓸때나 인격적으로살리지안허서는 결국 법의포로가 되는것이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일이거던 법도사람의 법이되여야지 사람이법에 매인사람이되여서는 법도 사람도 마지막이될것이다 ▲하기는 십면년도적잡이를 하고나니 세상사람이 모두 도적가티 보이더란말도잇다 과연새여들어야할 금언(金言)이다

오늘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少年小說 ▲六時三〇分 趣味講演 ▲七時二〇分 講演 ▲八時(東)獨唱 ▲八時三〇分 歌曲 ▲九時 詠詩 ▲九時一五分 大笒獨奏 ▲一〇時一〇分 레코ー드音樂

第一放送 ▲午後六時(大)對話 ▲六時一五分(城) 講演 ▲七時三〇分(大) 國民歌謠 ▲七時四〇分(東)講演 ▲八時(東) 獨唱 ▲八時三〇分(東)라디오時局讀本 ▲八時四〇分(城) 小唄 ▲九時一五分(東) 落語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日本海上과 本邦中部의南海上에잇고 高氣壓은 蒙古에七百八十二미리를 表示하야 滿洲、朝鮮에퍼저잇다 朝鮮은 大槪晴인데 湖南地方과 北東岸이 흐려잇다 滿洲는 남하흐리고 內地도조흐나 處處에흐려잇스며 樺太에는 降雪이잇다

豫報 오늘밤과 來日은맑다

昨日最高 零度一 同 最低 零下五度九 十一日朝 最低零下七度六 同 正午 零下三度

아ンチフラミン

位本 效果

外塗內治藥

(全國有名藥房販賣)

感冒等으로因하야 肺炎・氣管支炎(特히小兒)의 危險이잇슬때에 アンチフラミン을바르면 濕布劑보다도그 藥効가迅速히나타납니다

또한 神經痛・胸痛・肩胛痛・腰痛等에도 本劑를바르면 卓効가잇는外에 婦女의月經痛에도 下腹部에바르면疼痛을停止하고 行經을順調롭게하는 까닭에 各病院은勿論 一般家庭에서도 널리使用합니다

20瓦 60瓦

適應症

肺炎・感冒・肋膜炎・로이마치스・扁桃腺炎・氣管支炎・關節炎・神經痛・打撲傷・乳房炎・月經痛等

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

大連・上海・天津・臺北・米國紐育府

第十六回 全州藥令市

開市 昭和十四年一月十日(陰十一月二十日)

閉市 昭和十四年二月十八日(陰十二月三十日)

主催 全州漢醫藥組合

귀먹은이의福音!!

人工鼓膜

鼓膜破裂、귀아린사람이使用해서놀날만큼잘들리고눈에안뜨이고運動에도支障업는最新補聽器 重으로聽力이鎖한이에게조흔治療器가잇서만흔感謝狀을밧고잇습니다(說明書進呈)

高松市壓町六ノ十 サンセイ商會

治麻球

男女淋疾의靈藥

定價 五十個入 一圓 百個入 一圓八十錢 三百卅個入 五圓

患者諸氏여言論보다効果에事實이證明으로證狀이趣至하오니 一病의有無는試用後可知하게사오며 用法等은說明書에詳記

京城南大門通五丁目 製造元 發賣 救世藥館 電話②二九九六 振替京城二三六九

此外製劑四十餘種貳錢郵票보내시면劃引冊及規則書付

時計 完全修理 普信堂時計舖 京城鍾路二丁目

명안수 明眼水

안병령약 眼病靈藥

眼疾에는 明眼水가神效

登錄商標 正

カゼピリン本舖

十錢 三十錢

樂天堂製藥株式會社

農村에 都會에
家庭에 職場에
今年도 또
旺盛한 體力이 必要
强健한 胃腸이 必要
治療藥アイフ가 必要

004112

慢性胃腸病にはアイフ(아이후)

長期戰下 마침내 重要性을띠게된國民體力의 强化에健全한 胃腸은絶對必要하게 되엿습니다

體力을養成함에는 完全한榮養 適當한運動과 休養 日光 外氣의 吸收等衛生生活의 保持向上에依하지안으면 안될것은勿論입니다마는 同時에榮養의 根源이되는胃腸의强化는 一日도 疎忽히못할緊急事입니다 胃腸의 機能이旺盛하면 榮養을上乘狀態로 保全할수잇슬뿐아니라 全身의抵抗力까지도 노펴서 病菌의侵入發病도容易히 防止할수잇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日本人의胃腸病은 너무도一般的인까닭인지 하여튼 輕視하고治療를等閑히하던지 一時塗糊하는것等은 實로 寒心한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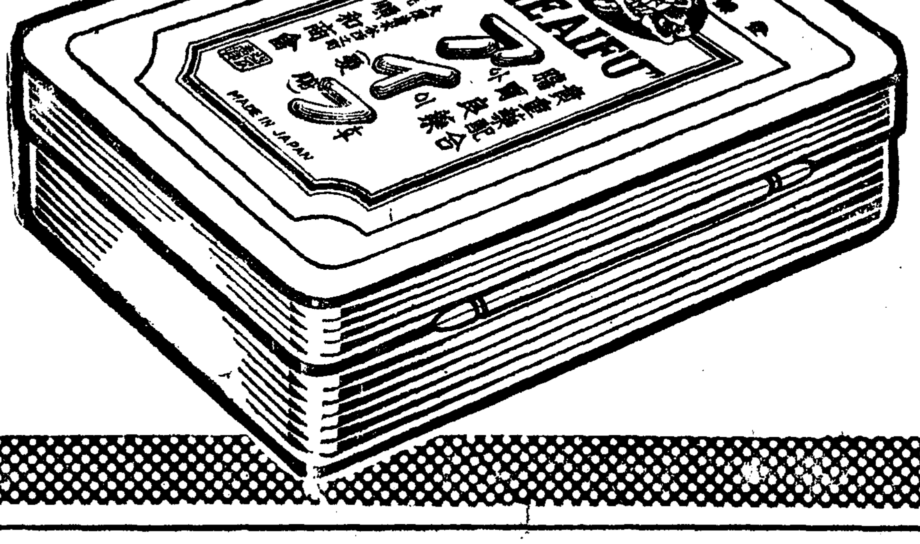
今日 國民의健康을 侵蝕하는 最大의 原因이라고하는 結核과가튼것도 胃腸機能이旺盛하야 榮養狀態 抵抗力에 缺陷이업스면 大部分發病을 防止할수잇슴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이國民病 胃腸病을 驅逐하고 體力 精力의培養에 努力하지안으면 안됩니다

거기에는 먼저初期의 胃腸病狀에 留意하고 執拗한食慾 消化 便通의 諸障害가繼續될경우 速히治療藥アイフ를 服用하야機能의 補正强化를 圖해야 될것입니다

더욱이 聖戰下緊張裡에 마지하는正月過飮過食과 밤새는것運動不足等의 不攝生으로 胃腸을害치고

嘔吐 腹痛 泄瀉等 胃腸가다루의 誘發에허둥대는일이업도록 治療藥アイフ만은 常備햇스면합니다

治療藥アイフ는病源對症二重으로 活動하는 作用이잇고 主藥이胃腸內壁의病變部에 沈着하야 炎症을고치고 粘膜을强케하며 弛緩을引緊하야 分泌과蠕動機能의 異常을整調함과함께 腸管內의 有毒物質을 吸着하야 體外로排泄하는等 廣汎한病源治療를行爲하고 아울러 가슴쓰림 트림 전구역 胃痛 腹痛 泄瀉 便秘 嘔吐 消化不良 食慾不振等의 諸症狀까지도 消退하야 機能의恢復을 速하게마는故로 過飮過食에依한 急性胃腸病은勿論 慢性的인胃腸病에도 알마진治療藥으로서 賞用됩니다



藥價

四日分	七十五錢
八日分	一圓五十錢
十七日分	三圓
特製 十一日分	五圓

重症에는 特製アイフ
便秘에는 加減アイフ

◀全國到處有名藥店에잇슴▶

大阪市東區清水谷西之町
發賣本舖 順和商會
振替大阪三四五五番 電話(東)五〇〇〇・五〇〇二・五〇〇三番
東京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番地 振替東京六二二八八番 電話(小石川)四〇一〇番
大連 大連市山縣通一丁番 振替大連三七六五番 電話七六〇八目

家庭

야단스런요새감기

애기잇는가정에서는 어른이꼭아라두세요

습포와흡입잘식히는법

겨울엔 아이들 감기가 무섭습니다. 감기가들면 목안이 아프게됩니다. 소위 언후가다투라는거지요.

그런데 이러케 감기가 심하고 목안이 아플때는 찜질과흡입하는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하기는 좀어렵습니다.

대개는 정당한 지식을 가지고하는것이 아니라 되는대로하는사람들이 만흠으로 병을낫게는커녕 도리어 더치는수가잇스니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케해야 조켓는지이아래 말슴하겟습니다

찜질『인후가다루로써 작고기침이날때엔 목에다 찜질을하고 기관지가다루나 폐염에는 가슴에 찜질해야합니다

목에는 호란네루를 폭은 한치닷분 길이는 한자다섯치쯤콘허가지고 끌른물에 적시여 꽉짜서 목에다갑고 그우에 기름종이를 물이새지안케 감어둡니다. 그리고 약두시간에 한번씩 이것을 가러대면 좃습니다.

가슴에 찜질하는것은 어른과 아이들이 다를것이데 만한살어때는 넓이가 세치닷푼 기리가 한자여섯치쯤이조코 다섯살전후는 넓이가 네치, 기리는 두자가량이 적당하니 이것을가지고 찜질할것입니다.

흡입시키는방법

흡입기병에는 흡입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흡입하기를 실허합니다. 이것은억지로 입을버리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이대니까 아이들이 실혀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입을버리지말고 놀때에나 잘때에라도 흡입기를 약한자거리에노코 쏘여주면 좃습니다.

그리고 김이 너무뜨거우면데기가 쉬우니 특히 이점을 주의하십시요.

또는 흡입약을 쓸때에는 아이들의 눈을 자극해서 결막염을 이르키는수가 잇슴으로 흡입할때는 눈을가리도록할것입니다.

흡입하는 회수는 하로에 두번, 혹은세번씩하는데 한회에흡입기에 잇는물로 두홉분양을 부어서할것입니다.

가정에쓰는 흡입약의 제일안전한것은 一%의 붕산수가좃습니다.

먼저 끔을그어노흔 꼽부에붕산가루를 차스숫가락으로 하나갓득너코 끌른물을 조금부어서녹인다음 냉수를 백그람에오기까지 부으면됩니다.

조선음식례찬

③ 비타민·씨의효능

세부란스病院內科 李輔英

질병과「비타민씨」

어느나라에서든지 결핵(結核)으로인한 사망률이 제일만타합니다 또 청년기에 만흔결핵과『비타민·씨』와에 엇어한관게가 잇는야하면『비타민·씨』가 결핍한동물은 결핵에 잘감염되야 쉽게죽습니다. 그러나『비타민씨』를충분히공급한동물은 결핵에잘 감염되지안코 쉽게 죽지도 안습니다.

또『결핵』환자가 각혈할때에『비타민·씨』를 주사하면 지혈할수잇스며 일반상태가 점점나어갑니다.

그리하야 요새와서는 결핵환자에게도『비타민·씨』를 만히응용하고잇습니다.

늑막염(肋膜炎)에는 엇더냐하면 늑막염에도 대단히 치료효능이 잇다고합니다 즉『비타민씨』를 주사하면 열이나리고숨수가 덜차고 고엿든 물이 잘흡수된다고합니다.

시금치 이것도 우리가 흔이국을끄려먹는다든가 나물을맨드러 먹는대생으로 먹는것보다 얼마나 주는냐하면 국을끄려먹으면 약五割이나죽니다 나물을 맨드러먹으면 약이할바개 줄지안습니다.

백채와무 이두가지는 한층중요할 물론하고 언제나식탁에떠나지안는 우리가 애용하는것입니다.

시기와 재배기에 따라서『비타민씨』의 함유량이 일정치안습니다만은 생것이 만습니다그러므로 생으로 먹는것이 제일좃습니다. 우리가 흔히먹지안습니까? 물에깨끗이 씻처서 삼을싸먹는다던지 풋저리를 맨드러먹는다던지 하는것도 다른나라사람에게는 볼수업습니다.

백채와 무입을 가지고 나물을맨드러먹으면『비타민씨』가 약칠할(七割)이나 죽니다만 국을끄려먹으면五할가량이 죽니다.

그리고 생무를 가지고 생채가는것을 맨드러먹으면 감소되는양이적습니다.

백채와무이야기가 나왓스니요 새우리가 매일먹는 동치이와쫑지 깍둑이 이야기를 좀하겟습니다.

어중에 동치이가 제일만코그다음에는 쫑지치 갓흔로 깍둑이가 끼게됩니다 겨울에는 동치이를만히잡수서서『비타민씨』를 충분이 섭취하야 겨울동안 잘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입과 무뿌리와 엇던것이 만호냐하면 무입이 만습니다 그러면 무입도 내버리지마시고 잘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자 이것도 상당히 만흔『비타민씨』를가지고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찬을하여먹는다는것보다 쩌서먹는일이 만습니다 이것은쩌서먹어도 일할밧게 줄지안습니다.

생추 여름동안 먹으면도 생으로 제일만히먹는것으로 상당히 만습니다 만은 이것도 물에데처먹는다든지 끄려먹는다면 팔할가량이나 업서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으로먹는일이 만키때문에 걱정할것업습니다.

부추 이것도 지나움식에 만습니다 만은 우리는 파대신에 쓰기도하고 장에너허 끄려먹기도합니다.

이것을 장에너어서 끄려먹으면 약구할가량줍니다.

되도록 이것은 생으로먹는법을 강구하시면 조켓습니다.

연근 이것은 우리가 고그다지 먹지안는 것이지만은 여기에도 상당히 만히잇습니다.

호박 호박은 생으로먹는 일이 드물고 대개는 나물로 복거먹는다던지 지지미를 맨드러먹는고로 이할내지 구할이가량줍니다.

하지감자 이것도 상당히 만히잇습니다. 하지감자가『구라파』에 수입된후로는 괴혈병이 적어젓다는말도 잇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수입하야 어디를가던지 구할수잇슬만큼 만습니다. 이것은 쩌서먹어도 그리줄지안습니다.

깻닙 이것도 뜨더서 먹는다던지 또나써서먹는다던지 또는 물로 맨드러먹으면 역시칠할내지팔할이죽습니다.

외 이것은 생으로 만히먹는것입니다. 그런까닭에『비타민씨』의 손실이 적습니다. 혹 외국을 끄려먹으면 九할가량 감소됩니다.

세살적버릇여든간다

어려서부터조흔습관기르기

위선말과규율로부터

어린아이가 만일년이되면 체중도늘고 주춤주춤 발자욱도떼게됩니다.

그리고 말도 몇마디씩하게되고 모든일에 흥미를 가지고갑작이 여러가지를 기억하게되는데 어때부터 조흔행실과 습관을 가지도록해야합니다

─말─

처음 말을배울때는 대개혀어리광이 만허서 무슨 말을가르켜도 제대로 배우지안코 여러가지로 다르게 부르게됩니다

그러데 그것은 이중말이되니까 할수잇스면 처음부터 제대로 말을해버릇하는것이 좃습니다

물론 어리게 처음부터 말을바로하도록하되 어디까지나 자연스럽게 저흥저 배우도록해야할것입니다

어려서 발음을 잘못해가지고는 큰담에도 그대로 고치지못하는 아이도잇습니다

─어리광과지랄게─

띄여딍업 거롱말을 라거든말거나 안어주지말것이며 어려서부럽 강한 의지와 인내력을기르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넘우 어리광을 피우게말고 더구나 아이를 버릇을 구처노흐면 한시간, 두시간 울음을 느리노코 잇는데 이러한 버릇은 엄금해야할것입니다

우는대로 군것질을 식히지말며 너머젓을때에도 어디 다친데가업스면 제절노 일어나도록할것입니다

─깨끗함과규률─

위선 제작난감은 잘정돈하도록해야하고 기저귀 밧구는것과 오줌똥도 규측잇게 누여버릇하고 특히세수하는 습관을길너주어서 세수를 즐겨하도록 어머니가 잘생각할것입니다. 음식먹을때 든집하지말게하고 음식을 사방에 허트리는버릇을 짓게하지마십시요.

그리고 이것저것 가리지말고 아모것이나 달게먹도록 습관해야합니다.

또는 어른이 부르면 곳대답하는 습관도 이시대에부터 배와두는것이 좃습니다.

─동물과친하고사랑할것─

아이들에게 동물은 무서운것이라고 가르키는것은 재미업습니다

또는 아이들 보는데 개나고양이가튼 즘생을 뚜씨굴거나잔인한주승해 보히는것은 아조조치못합니다

아이들은 특히 동물에 흥미를 만히두니까 그흥미를 바른방법으로 지도해줄것입니다

凍傷 火傷

簡單히곳이는

어느家庭에서나 苦痛재리

근지럽고 가려워서 견듸지못할凍傷과 부릇터서흉한흔적을남기는火傷은……겨울이되면 어느가정에서든지 고통꺼리지만 어떤 경우에『깅캉』의신속한효과는 정말소생의기쁨일것입니다

凍傷곳치는법

이약은 지금까지 보지못하던 滲達性이므로 凍傷이될때 바르서면 가려운것이삭고 간단히낫습니다 러진데는 알픈곳을 풀게찟은후 처음에는 周圍에二三回바르고 다음에알픈곳에다 바르면 가려운것이삭고 속히낫어버립니다

火傷에는

흐썩못에다무처가지고 열는바릅니다 딸三거든 또바르고 딸는거든 또발니 확근거리는기운이 업서질때까지 바르면곳낫습니다 알픈것이 업서질때까지 바르십시요 그러나 失코 濕布나 繃帶를 해서는안됩니다

한家庭에 한병식은꼭必要

이약은 類가업는 滲達性의塗布藥으로 消炎·殺菌力은 在來品의三倍나强하며 速히 듯고 滲透力이强하야 病根을두려새는故로 疼痛, 가려운것, 부기를업새는 理想的家庭藥이라하야 한번써보신분은 異口同音으로推賞하십니다

無代進呈 얼마나 잘듯는가試驗해보시도록 無代로進呈하오니 葉書로 東京市世田ケ谷區三宿三一七·金冠堂宣傳部로申込하십시요

價 一五十錢·二圓 一圓·五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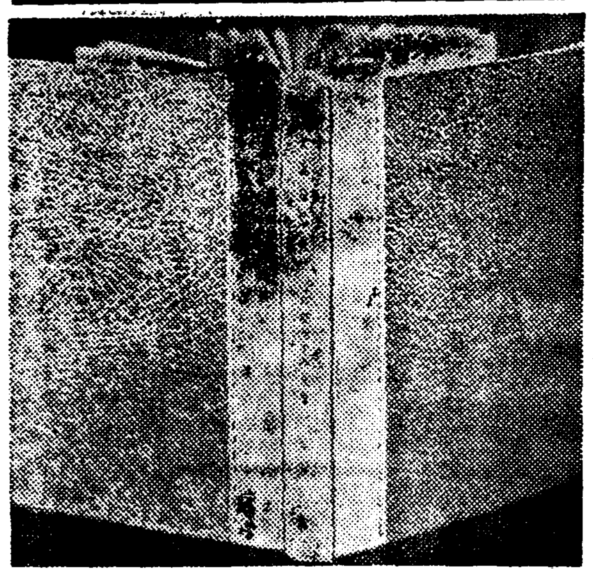
全朝鮮有名藥房·百貨店藥品部販賣

總代理店 鍾路 玉置商店

製造元 金冠堂

家庭良藥 깅캉

新選文學全集



四回配本

女流短篇傑作集

四千年間女性才華의發露!!

百花燎爛의最高傑作集!!

이女流短篇傑作集은 우리女流文壇의 最高峰으로 實로 四千年間 朝鮮女性才華의 發露이다 現文壇에活躍하는 女流文人七氏가 그의 文壇生活中 唯一의 最高傑作이라고 自信하는 短篇을自選하야 이册을編成한것이니 冷澈한理智와 世紀的情熱에타는 이册의內容은 八面玲瓏의 珠玉과가터서 우리女流文壇의 劃時期的 壯擧라고아니할수업다 文藝愛好家는 勿論이오 一般文化人도 반드시아니볼수업는好著이다 蘭雪軒 黃眞等의뒤를이어 우리女性文化의 才華는 이册속에숨어잇다 一般讀書人은 速히 이册을購入하라。

第一回配本 朝鮮文學讀本 發賣中

第二回配本 新人短篇傑作集 發賣中

第三回配本 朝鮮兒童文學集 發賣中

第四回配本 女流短篇傑作集 發賣中

各方面의讚辭

우리出版界의 大盛事 中東學校長 崔奎東

귀사에서 발행하는 전집은 우리문화에 큰공헌이잇스리라고 밋습니다. 이것은 한학교에서 수천학생을 가르치는니보다 못으로하는 교화는 그힘이 더 큽니다 每回마다 절찬을밧고 또『女流短篇集』이 나온것은 매우 기쁨니다.

흥흥한書翰 世專校長 吳兢善

이번 귀사에서『新選文學集』이 발행된것은 기쁘하는 사람중에 저도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별써 삼회을 바드리라고밋습니다.

朝鮮文化의供獻 詩人 朴八陽

저번에『朝鮮現代文學全集』을간행하시여 보호하여주시고 한거름 더 나아가 북도다주시는 귀사의 고귀한 정신에 대하야 우리는 스스로 머리가 숙으러짐을 느낌니다.

萬人心讀의全集 畵家 高羲東

『兒童文學集』이 나와다고 하니이책은조선서 처시헙이니만치 그 티한내용이 만인에게 절찬 배으로 조선문화의 발연에 공헌이 심대하신 귀사에서 금번에또『新選文學全集』중『兒童文學』분으로 문학도분을 발산하심에 대하야 그히생적이신 사업이 예기하시는 바대로 완정되기를 심축하야 마지안습니다. 일허버리기쉬운 우리의 文化를 차저주시고 귀사발행의『現代朝鮮文學全集』도 조흔 서적을 뫼엇거니와 이번『新選文學全集』도 반드시 큰 성공을 거드실것이라고 밋습니다. 내용이나 집필인이나 모다 이때에 보지못한 호화한 계획이 서로 추천하기에 마음이 든든한전집이외다. 이런 조흔 출판물이 계속하여 나오는것은 심히 즐거운 일이외다 云云

新選文學全集에對하야 李孝石

보내주신 전질권의 現代朝鮮文學全集이 서재속에서 제법한개의 城을 잡게된 것을 볼때마다 기쁜마음에 귀사의사업의 완결을치하해마지안는 가운데 다시『新選文學全集』의간행은더 한층 서가에나아가서는 조선문학의총결을 도모해줄것을생각할때 사례의마음이좃습니다 특히편습이 문야도 넓고 특색잇서서 이제는거의 조선문학의각분야를 망라시혀하는감이잇서서 이여기뿐입니다 공이차므로 공됨을아무조록 지장업시 금번의대업이도한 무사히 완결된것을축하하는바입니다.

本書의內容

地下村	姜敬愛
聞夜月	張德祚
春宵	朴花城
臙脂	李善熙
穀象	崔貞熙
사월이	盧天命
彩色橋	白信愛
糊途	白信愛

今月로全四卷遂完成

純粹芳香의最高全集

四六版 銀字入豪華洋裝의美本

用紙最高級純白楊紙使用!

一册定價 一圓二十錢(一書留送料二十二錢也)

一時拂 全四册四圓五十錢(送料는全部本社에서부담)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番地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朝鮮歌舞豪華版

聲樂研究會公演

一流名妓名唱三十餘名出演

十一、二兩日間

平壤 金千代座

映画は日活

八日より四日間「新春陣容第二週」

◇コロムビア社超大作 ほろ苦き祝宴 リチャード・ディックス フェイ・レイ 主演 人の世のあわれは映畫の都にもある悲哀と流轉を描く淪落せるスターの人間哀史

◇日活テイチク合作 彌次喜多道中記 原作 小國英雄 監督 マキノ正博 片岡千惠藏·楠木繁夫·杉狂兒·テイチク·ミネ

◇日活多摩川大作『婦人公論』連載小說『隅田川』の映畫化 濱本浩 原作 伊賀山正德 監督 青春の流れ 小杉勇·村田知榮子·田村健二 主演

ニュース

偕樂館

◆青春座大公演◆ 新春一月十一日밤부터 南宮春作 世紀의家庭風景 全二幕 劇作界의巨匠李瑞求力作 ◆悲劇 안해의가는길 三幕四場

▌特別豫告▌(晝夜二回續映) 오는十四日十五日兩日間府民館大講堂에서 東劇映畫部主催로第二回名畫大會上映합니다 靑春의感傷과 歡喜를 謳歌하는가장明朗한二大名篇春의 調べ와 乙女の湖 그리고 半島映畫社特作인 方漢駿監督의 漢江 西三大名畫를公開하겟습니다 주시사요十四日十五日兩日間府民館으로!! 大衆特別料金으로全部二十錢均一!!

東洋劇場 電③ 2154(劇場專用) 3640(事務室專用)

平壤·大劇

八日より四日間『新春第三陣封切』

◇パラマウント超大作 エリオット・ニュジェント監督 ロイドのエヂプト博士 ハロルド・ロイド主演 笑ひの巨匠世界最高のユーモアである見て笑へ笑門に百萬の福が來る

◇東寶大作 雜誌『主婦之友』連載小說の映畫化 久米正雄原作 阿部豐演出 吾亦紅 入江たか子・高田稔 大日方傳

◇ユナイト超特作 木に攀る女 ミリアム・ホプキンス ジョエル・マクリー

ニュース

大衆料金 一月十日晝間早旦二日間 每日三回興行 第一回正午 第二回三時 映畫三回七時 외 1나社超特作 全發聲日本版 로이도배이공 監督

東寶映畫社超特作 踊る卅七年 떠구바엘·홍부로 主演

東寶映畫社超特作 青春部隊 松井稔 監督

P.C.L.オンパレード 東寶名優總出演 伏水修 監督 東京ラプソディー

次週豫告 千葉早智子 主演 プラウンの 本五十六 ケン街

第一劇場 電光一七五五

學藝

文學建設의 決意와 方法
‖現代朝鮮文學의 頂點에서‖
③ 韓 植

『新聞이 世上의 騷然한 喧噪의 模樣을 얼마인가를 내에게 가르처줍니다 어떠한 結末에 逢한것인가는 모르되 人類는 아직 얼마든지 大騷動을 이르키고잇슬것입니다。그러나 나는 이와가튼 騷亂들이 이르키는 一切의 事件(動亂이든지、策略이든지를 不問하고)의 가운데잇스면서도 平和의 가장 아름다운 勝物을 享受하고 잇습니다。』이와가튼 마음에야 비로소『페ㅣ렌』的 叡智가 發生하며 이곳에서만 觀念아니 知性이 開發될것이다。

그中에서 凝結된 火焰을 볼수 업슬가。潮流에 부대끼는 海藻의 感覺을 보라! 하나、하나의 波濤에 나붓기면서도 기픈바다、구든 海岩의 한연쪽에 짝드러바킨 針櫚藻類의 思索、飛翔이아니며 傲慢이아니나 누가

浮動

을 말하며 누가 果然 妄發을 말하여낼가。海藻의 感覺、牡蠣의 眞實 이와가튼곳中에서만 리아리즘을 말할수가잇스며 로만티시즘을 希冀할수잇는것이다。

『密蜂마아야』가운데서 //아도이스//『人間의 손구락』이라는 詩를 보라。『너는 등울면서 길고 너의머리에는 민들민들하면서도 날카로운 鐵甲이어서 움지김에는 自在로다。그러나 너의발은 구든 地盤에 定着하고잇고나。』現實에 붓든 根帶、움지기는 머리、藝術은 무엇보담도 嶄新하며 더욱 偉大하여야한다는것은 이와가튼 現實에 根帶를가진 따라지 以外에서는 차기 어려울것이다。이에 리아리즘과 로만티즘의 統一된 高貴한 藝文의 世界가 存在된다。現實속으로부터 眞實한 人間像을

創造

할수잇는 瞬間이다 손구락의 움지김은『푸렉씨버리티』이다 나는 이와가튼 順應性을 두려워 안한다。더욱 貴할려고도 안할것이다。罪업는 사람만이 마리아에게 돌(石)을 던지기 때문이다。다만 그 손구락과 가티 그뿌리로써의 발이 다다히 大地에 定着되고잇는 限에서만 우리는 오래동안 잇지안헛든 말을 생각하여보자。쉑스피어의 激刺、그의 高邁한 精神、그리고 그의 大衆性을 그어느곳에서 嶄新하며 偉大한 藝術 새해를 마지하는 明日의 文學者로써의 決意와 動向을 차저낼수가 잇슬것인가。

가리레오의 [illegible]이 必要하여도 조타 [illegible]을 整理못한채로 생생한 切斷面을 뵈여도 조타 尨大한 大陸에 對하야 새로운 노래를 準備하여도 조타 文化의 理念을 노칠수잇는 部門으로써의 生産 어떤 素材『아이디아』래도 不問하리라 모ㅣ팀의 如何는 마음대로 할지어다 雜沓한 夜市場가운데서 風鈴의 노래에 귀를 기울리며 商人들의 喧嘩가운데서 이름업는 새(鳥)를 買해하며 서리맛는 秋海棠과 百日紅을 愛惜하여도 조치안흔가 自己不信의 노래도 조타『제루부스트、몰르트』할수업는 敗北의 實感을 말하는데 무슨

躊躇

가 必要할가 그러나 다만 하나 忘却치 말것은 證明할려고 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이다 結論을 急하게 하는 마음을 버리라 數學者와 쏘갓흔은 證明하엿스나 結局 하나도 證明못하엿든것이 아닌가 人生이란 證明할수업는것이다 小說에 結論이 업음은 우리 一生에 結論이 업는것과 가타다 더욱 現在에 잇서서는 自然을 배우며 藝術의 世界조차 우리에게 豐多한 實體를 던저주는것이다 그인자귀 그풀우라지 그꼿 그열매에 이르기까지 예번의『메타모루포ㅣ제』를 敢行하는데는 틀림업다 그러나 그는 土壤으로부터 樹液을 大空으로부터 陽光을 마음것 攝取하며 吸入하여 마지안는다 어떠한 植物이던지 어떠때의 自己沈滯가운데서래도 冬眠가운데서래도 來年을 爲한 自己結實과 萌芽를 한 時刻이라도 꿈꾸지안햇슬때가 잇슬가 萬若 그러치안는 때가 잇다면 그때의『메타모루포ㅣ제』는 究極하는바

枯死

할 運命에 잇다 어떠한 적은 眞實이라도 큰 거짓보담은 만흔 조흔것을 包含하고잇다。오늘날 銘記할것은 文學과 文學者의 眞實은 큰거짓에 더피워서 뵈이지안흔 적은 斷片의 아름다운것을 차저내는것에잇다。

現代學生氣質論
◇理想에불타는學徒들에게◇
③ 延專敎授 鄭寅燮

나는 나의 論旨를 明白하게 하기爲하야 다음에 本紙『學生페지』에 記載된 또다른 某專門學校 學生이쓴『어느날의 自畵像』의 一部를 다음에 引用하기로 한다——『나에게 許諾한 現實은 너무도 貧弱하고 狹少하고 나에게 授與된 知的批判力은 過度하고 偏余하기에 드디어 나는 自己分裂의 길을 밟지안흘수 업나니 여기나는 自身의 窮相을 客觀해할 不幸을 어더노라

×

卒業도 數個月밧게 남지안흔 어느날——×會社專務 某氏의 門前을 徘徊하는 安協보다도 卑野的인 나自身을 發見하엿다 只今 네가 머지게 두손을 너흔 外套포켓속에는 얼빠진 履歷書와 卑屈한 紹介狀이 드러잇슬게다 아! 너는 記憶하는가 野望에 불타든 그어린날을 고무볼에 世界地圖를 그려 호주머니에 너흔 그時節을 너는 무슨罪를 犯하엿기에 젊은이의 꿈조차 버리고 二十代에 벌써 絶望의 사슬에 얽키여잇는가 아! 너는 對答지 안흘지나 數만흔 曲折이 잇겟지 그러면 너는 왜? 招人鐘을 누루지못하고 門前에서 躊躇하는가 너는 門직이 개가 두려우냐 너는 아직도 潔白을 가젓드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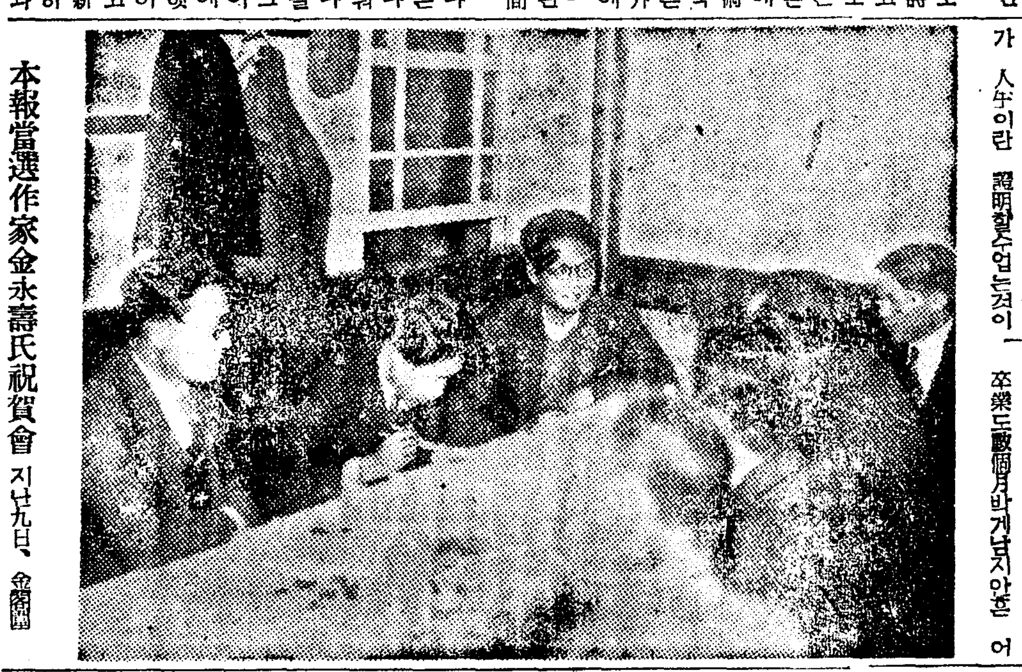
—나는 이 글을 읽고 그글이 創作價値로 훌륭한 글이라고 생각햇다 그러나 어떤 그 內容에 잇서서 作者가 多分히 世紀末的 苦悶을 가진것에、同情은 하면서도 良心과 就職과의 사이에 煩悶하는 그心情은 한거름 더나아가서 오히려 憎惡를 느끼는것이다 何故오하면 이미 自己가 實敢하지못하는 사람에게서 紹介狀을 바덧거나 또는 就職處가 滿足스럽지못하다면 아예 그러한 努力을 처음부터 아니하는것이 當然할것이엇슴에도 不拘하고 그집 門前에와서 躊躇하는 場面은 實로 無意志的인 軟弱을 보이고잇는것이다 나는 그글의 文藝的創作으로서 成果를 말하는것이 아니라(그것은 석잘揭載되엇스며 心情을 울리는 무엇이 잇지마는)學生들이 現下에 잇서서 取할바 한개의 人生態度를 말하는바이다。무릇 自己의 모든 形便이 就職하야될 處地에 이른 學徒로서는 履歷書、紹介狀、面談等은 實로 避할수업는것이어서 거기는 조곰도 潔白與否의 問題가 介入할수업는것이다。

社會가 自己를 推薦해주지아니해준다고 往往 不平을 하며 努力도 해보기前에 [illegible]하는 사람은 이미 그사람 自體가 社會에 對해서 誠意가 업는 사람으로 認定해도 조흔때가 만타. 自己는 努力하지아니하고 다른 同僚學生이 就職運動에 [illegible]고잇는것을 보고 다만 冷笑的으로 嘲笑한다는것도 無意味한 일로 생각한다。거기에 自己가 就職이 되엇다할지라도 다만 참된 實力으로서 싸우며 또한 周旋도 할뿐되 흔히잇는 卑劣한 [illegible]는 取할바 길이 아닌것이다。

그리고 社會는 一部學生들이 생각듯이 그러케 單純히 安價하게 움직여지는것이 아니다。學生知識階級이 高踏的 自尊心을 가지고 [illegible]位를 가질려든 時代는 벌써 지내갓다고 할수잇스니 모름직이 業分的인 自尊心은 淸算해야 될것이다。

萬若、就職의 奴隸化가 실타면 일즉부터 自營의 事業或은 其他創造的經綸에 着眼하야 일즉부터 準備해두어야할것이다 나는 비로소 여기서 以上三種의 學生群의 調和連絡案을 提示하려고한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第三의 良心的인 理想을 가진 學生은 흔히 第一의 無爲有閑學生과 第二의 利己的 商品豫備學生을 다만 嘲弄한다든지 無視해버리고 가티 사괴지도 안치마는 그럴것이 아니라 第一類의 學生群은 大略 집안이 넉넉하야 資力에 잇서서 有望한분이 만코 第二類의 學生群은 資力이 업스나 技術이 잇다고 할수잇스며 第三類의 學生群은 資力과 技術은 不足한다 할지라도 創造的理想이 잇다고 할수잇슨즉 學窓時代에 서로 理解하며 忠實해서 나종에 卒業後 資力과 技術과 理想이 三位一體가 되어 事業을 經營한다면 그야말로 同期同窓으로 或은 先輩後輩의 同僚로서 남다른 信賴와 協力으로서 成功할수잇는것이 아닌가 이것은 實際로 例가 만흔데 아니라 三種의 學生群이 서로 分裂 輕蔑 傍觀相爭하는것보담은 文化[illegible] 融和에 綜合的努力가 잇슬것이오 [illegible]하는것보담도 훨신 보람잇고도 뜻잇슬수잇스며 事實에 잇서서도 有益할것이다。

다음에 나의 論點은 一部學生들이 社會에 對해서 느끼는 不滿不平과는 그性質을 달리한 校內의 不平不滿 換言하면 學校當局과 敎師들에 對한 感情에 對해서 한마디 말하려한다。現下 朝鮮學生들은 다른 社會에서는 [illegible]수업는 말을 學校當局에 對해서 [illegible]하는것이다。以上 三種의 學生群中에서 第一의 部類에 屬하는 學生과 第二의 部類에 屬하는 學生들은 大衆人的 感情이라거나 利己的 動機에서 그不滿이 原因되기쉬우나 第三의 部類에 屬하는 學生들사이에서는 그와가티 簡單하지안코 社會的 雰圍氣에 抑壓된 感情을 一時的으로 個人先生에게 暴發하는수가 만타。



本報當選作家金永壽氏祝賀會 지난九日、金剛園

新春頌

滑氷黨
金 南 天

新年에 술먹을 機會가 만히 생기는것이 吉한일인지 凶한일인지 또는 아프로 한해의 운이 활작 티일 징조인지 아닌지는 모르겟스되 이지음 날로 腸이 弱해 가는것갓고 어인탓인지 宿醉가 자심해서 痛飮한 뒷날 一兩日間은 아무일도 손에 대지못하는 나로서는 爲先 반가우면서도 은근히 켕기고 怯나는 일이 아닐수 업섯다。그러나 원체 意志가 薄弱한 나인지라 胃腸이 弱해지면 종차 胃潰瘍이던가 胃下垂症이던가 하다못해 消化不良이나 慢性腸加答兒症이라도 어들것을 怯내 하면서도 더구나 내가지은 小說의 主人公한분은 어 胃潰瘍때문에 麻藥中毒者로까지 轉落되어 作者인 내가 [illegible]을 넘어서 어떠케든 精神的 改造를 해 볼려다가 그만 어떠케도 할수 업섯든것을 나는 잘 알고 잇기때문에 그點에 對해서는 相當한 過敏症을 부려야 할터임에 不拘하고 친구들과 마주 안저 술잔을 나누는 질거움과 陶然하야 愁心歌를 불르고 눈오는 길을 걸으며 大言壯談하는 快感을 버릴수 업서 술 먹을 機會를 避하기는커녕 때로는 스스로 만들려고도 애쓰는 爲人이니 머리가 쇠뗑어리 처럼 무겁고 귀ㅅ구멍이 웡웡거리고 연신 嘔逆질이 나고하야 어제밤 웬술을 이러케 처먹엇든가 後悔가 나고 自責까지도 해보다 인제 아무리 되여보앗자 그야말로 後悔莫及인것이다 多幸히 된장국이래도 한사발 마시면 정신이 들어 그날하로에 해치울려고 計定表를 꾸며던것을 생각해내고 푸시시 자리를 거더차보는것이나 오금이 쑤시고 눈아괴 아찔하야 到底히 손을 冊床우에 올려노흘수가 업는것이다 이런때 나는 국을 한사발 더 請해먹고 어름판으로 나가보다。

蔡萬植君이 어느 雜誌設問에서 自己는 자꾸 니히리즘에 對하야 魅惑을 느낀다는니보다 아직 못하는 동안에 그리로 밀려 가는것 가태서 픽 마음이 씨인다는 卓上日記의 一節을 읽은것을 보고 적지안흔 興味를 느끼엿는데 실상인즉 이러한 心境은 아마 누구나가 크고 적고間 느끼는 일일것이다 事前에 이놈이 두려워서 나는 보지 이런 附近에는 애써 눈을 꽈지안코 迂廻를 하는 축이다 그러커고 보면 모르는동안에 妙한 고장에 파무처 보고시픈 다른 적은 心境이 안옥히 나를 잡어버리려든다 차이콥스키ㅣ의『안단테칸타비레』나 드르면서 잘 갈은『모까』에 砂糖을 한담뿍 쳐잡한 커피맛이 나도록 너어서 마시면서 水仙이 자라나는것을 바라보며 하로종일을 보내고 시픈 이런 아니꼬운 狀態가 자꾸만 그리워 지는것이다。내가 이리다가는 秋史의 글씨이나、질그룻조각을 따라 다니며 꽁연한 궁상을 떨게 될는지도 모르겟다고 三轉하야 생각해 내것이 이 또한 어름 판이기도 하다。

니히리즘이 小說을 못 쓰도록 만들 危險性이 잇슬른지는 蔡君과 맛나보지 오래되어 미처 물어보지 못하얏스나、急한 新刊도 벤벤히 못 사보는 가난한 여석이 骨董이나 書畵를 주물르며 고리타분한 궁상을 떨다가는 小說에 붓을 대이지 못하게 될것이 뻔한 일인지라 날이 차고 바람이 매워도 나는 어름판으로 나가는수밧게 업다。허기는 이러때 헌뜻 李石의『소타』라는 小說의 主人公을 생각해 보지안는배 아니다。그는 어떠케도 할수업는 竊盜할듯한 精神狀態를 깨치고 나가기위해서 바닷가 푸른 잔디판우에서 풋뽈을 차기로 햇다。그러나 내가 向하는곳은 漢江도 못되고 昌慶苑도 못되고 구멍투성이 龜裂투성이의 人造氷板이니 숨이래도 한번 상쾌하게 내뽑어 볼길이 업다。그래도 軍刀가튼 中學生들의 스케틀에 끼어서 발피면서 한바탕 뱅글고 궁둥방아를 찟고 나면、어지간히 절믄 氣象도 蘇生하고 宿醉도 도망간다。胃酸過多의 中和劑나 서플리『미구리링』劑나 한두봉지 먹는것보다는 훨신 씩씩하고 가까운 處方이다。누구 친구나 생기면 漢江에를 못갈것이 무어이냐。이리하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或시『오뎅』보다도『시루꼬』를 즐기게될런지 그것 또 누가 알일이냐 스켓이 가죽과 쇠가 모두 올라서 相當히 비싸젓으나 하룻밤 술갑시면 면진 녹피귀어ㅣ는 염려업시 장만할수 잇다。決코 體育을 小說道나 詩道의 우에 두자는것이 아니니 希望하는이는 어름판으로 나오라。詩人李一을 主將으로 推戴할테니 어느『팀』보다 그다 遜色은 업슬게다、

新刊紹介

▲月刊野談 新年號 發行所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月刊野談社 振替京城二六三五二番 定價二十五錢 送料一錢

▲農業朝鮮 新年號 發行所 京城府堅志町一一一 大同出版社 振替京城一〇二一九番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神學世界 第二十三卷第六號 發行所 京城府冷泉町二一 神學世界編輯部 振替京城四六四〇番 定價二十五錢

▲東洋文光 創刊號 發行所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東洋文光社 振替京城二八五〇九番 定價四十錢

▲時光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淸涼里町 時光社 振替京城五七四三番 定價十二錢

新春文藝一等當選

素服 (五)
金永壽 作　鄭玄雄 畫

덕근이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서섯햇다。

『멀 으떡햇 그냥 대리 용두리집 부려드려 안치지、그걸』

『……』

양서방은 잠깐 그년을 경탈 덕근이 말대로 그려케 요절을 넘까도 생각해보앗지만 그러나 그것은 도저이 자기로서는 되지안흘것을 안호에 다시

『흥、제ㅣ길헐』

이런 힘업는 소리를하고 다시 돌아서서 마걸리 사발을 잡앗다。

『그래 그끌을 보구 살어? 신척지 신끌을 보구 살지ㅣ』

양서방이 때 한참이나 조용하니까 덕근이는 심심한지 이번엔 양을 올린다。

『그럼 으떠허나。』

양서방은 늘 그소리가 그소리다。

『참 사람두ㅣ。나거든 정말이지 그 연놈을 어떨 병신을 맨들어 놧든지 으떠허든지 햇겟네。』

『……』

『그래 내가 뭐래셔。애당초부터 정신채리랫지。이건 패ㅣ니。』

『……』

『게집이란 그저 가끔 방맹이찜을 대야 사람이되는거야。』

『……』

그래도 양서방이 잠잠 하니까、

『그래、여봐、내말이 거짓말이든가? 응? 바루 그둠이지? 그럿치?』

이러케 떠들며 대들엇다。

덕근이는 제가 맨먼저 그상고머리 반찬가게 권녀석하고 용녀가 얼린것을 알엇다는것이 언제나 양서방 아메서 자랑이엇다。

사실 양서방도 이덕근이때문에 그 속을 알엇고、그러니까 양서방이 무슨 소리를 해도 탄하지 안엇고 공손히 들엇다。

『정말이지、지금 푸욱 쪽 썩는게 계집인데 그래 무슨천작에 그 꼴을 보구사나、참 사람두ㅣ』

『……』

양서방은 모두 덕근이의 말이 올캐올리고해서 할말이 업섯다。

그럼 어서 나오게、먼저 가네、하고 덕근이가 병문으로나간뒤 오래지안하서 양서방은 술집을 나서서 병문으로 나가는 길을 등으로하고 모교스다리이서댈네 국수시집으로갓다。

투전을 할수잇거나 그러지안흐면 하다못해 화투짝이라도 벌어지는 수가 잇스니까 양서방은 그리가면 심심치는 안흐려니 하고 간 것이다。때는 벌써 패가일려서 양서방이 드러서기가 바쁘게

『양서방 이게 웬일유?』

『아 자네두 한목 끼려나?』

하고들 반겻다。

양서방은 그래서 온조엽 이 이선달네 국수시집에서 늘어붓고 말엇다。

원채 이런 노름에 그다지 의숙지못한 그라 물론 애초부터 따보겟다는 뱃심으로 덴빈것은 아니지만 묘하게도 나조판에 보니 동전한푼 남기지안코 알들히 까불려세고 말앗슴에는 정말 어이가 업섯다。

허나 돈은 그러케 모두 업섯다고 하지만 양서방이 여기서 하나 큰 소득이 잇슨것은 짜장 기뻣다。

그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용녀에 대한것이어서 용녀가 지금 배가 마진 놈이 바로 상고머리 바차가게 권녀석이란건 벌써 덕근이에게 들어서 이미 아는게지만 그래 대체 그것들이 어디서 만나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하던것이엇는데

『글세 그 화장품 팔러댕기는 팔주년집이서 만난다드군。』

이러케 이선달이 아무 흥미업시 하는말에 양서방은 용하고 하마트면 소리래도 질러울만치 놀랏고 기뻣다。

『팔주 집이서?』

양서방은 인젠돈 멋원 일흔건 염두에도 업섯다。

이 새로운 사실에 귀가 번쩍 띄어서 이선달의 수염인 얼굴만 처다보다

『아 자넨 여태 그것두 모르낭아 그 팔주가 여간내기 아닐세 아、헐다헌 두챙이야。』

小說 **無明** …… 李光洙

小說 **離婚** …… 兪鎭午

小說 **山精** …… 李孝石

小說 **寧越令監** (第二作品集以後의 作品) …… 李泰俊

小說 **恨中錄** …… 惠慶宮洪氏 李秉岐註解

詩 **石窟庵** (三章) …… 月灘

詩 **어미소** (外一篇) …… 金尙鎔

詩 **失題** …… 林和

詩 **잠든눈** …… 毛允淑

詩 **松田風景** …… 李敭河

一九三八年度노벨賞受賞者 **퍼ㅣㄹ벅記** 梨專敎授 파욱스

從軍畫家展印象記 …… 金眞火

新人 **推薦作品募集規定發表** (우리文壇에서 가장 權威잇는 登龍門이 新人들을 推薦하리라)

文章
李泰俊主幹 純文學雜誌
創刊號 定價 四十錢 郵料 六錢

敎養論 …… 李源朝

文章論 …… 梁柱東

朴泰遠論 …… 安懷南

朝鮮文學硏究 …… 李熙昇

李朝美術硏究 …… 金瑢俊

身邊雜記 …… 小說家 金東仁

文章私談 …… 城大 金晋燮

소리 …… 小說家 崔貞熙

靑瓷瓦와養怡亭 …… 開城博物館長 高裕燮

盂蘭盆 …… 佛專敎授 朴允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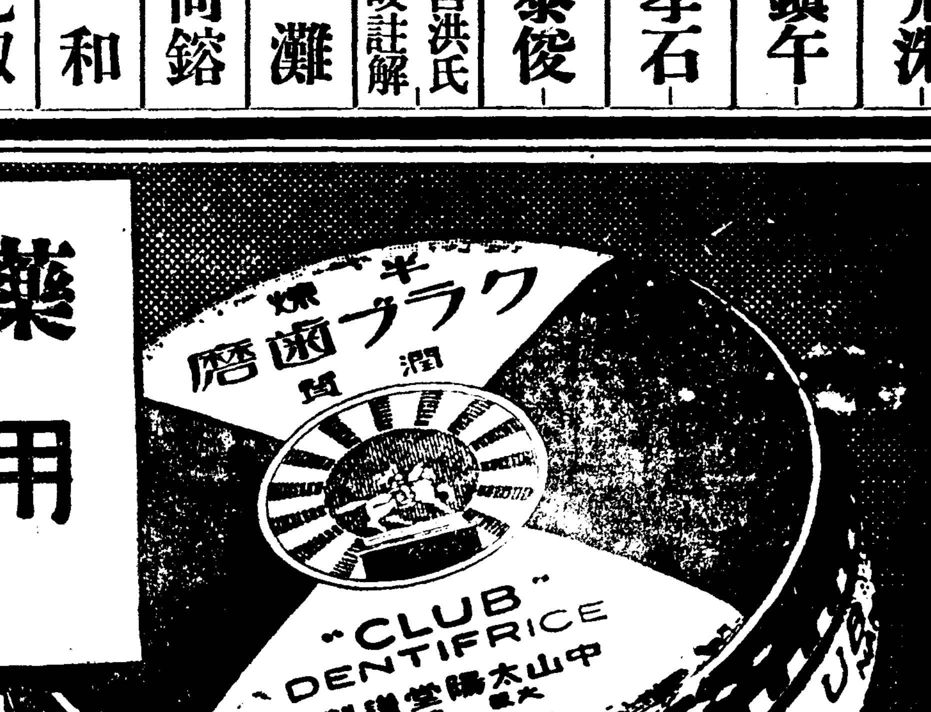
蒐集斷想 …… 民俗學者 宋錫夏

連載 **文章講話** (第一講、文章作法의 새意義) …… 李泰俊

十二日 全國發賣 京城府鍾路韓靑빌딩內 振替京城二五〇七〇番(電話光化門六二七番) **文章社**

004113

藥用 クラブ齒磨
구 라 부



健康も衛生も; 貴方の決心一つ
건강도 위생도 당신의 결심하나

齒는 닥기만하면 虫齒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잇다면 그것은 큰 誤謬입니다 完全히 口腔을 殺菌 淸掃하지 안흐면 虫齒는 勿論 其他의 惡疫을 豫防할 수가 업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齒列의 사이와 口腔의 溫度는 黴菌의 絶好한 溫床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程度인 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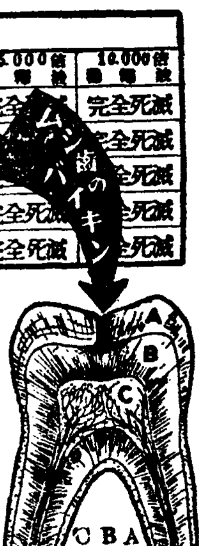
☆ 健康과 衛生에 조금이라도 留意하는 분은 반드시 殺菌藥理作用이 强한 クラブ齒磨를 使用하십니다 一〇、〇〇〇倍로 稀薄시켜도 特筆할만한 殺菌性을 發揮하는 特許의 强力殺菌劑 구로ㅣ루·갈바구로ㅣ루와 요ㅣ도치모ㅣ루가 奧齒의 구석구석과 齒齦에까지 滲透하야 虫齒의 黴菌(左의 實驗表를 參照해주십시요)과 惡疫의 黴菌을 死滅 淸掃해 버리는 故로……거기다 淨化力이나 香味도 뛰어나고 잇습니다! クラブ齒磨를 常用하시는 것이 말할것업시 今日의 健康法입니다

얘기들에게는 クラブコドモハミガキ를 주십시요。香味도 달고 조아서 떼쓰는 아해라도 즐겨서 닥게됩니다

この强力な殺菌性能

얼마나 クラブ齒磨가 虫齒豫防에 有効한가는 現在 이 實驗表를 보시면 充分히 아실 것입니다

	500倍 稀釋液	1.000倍 稀釋液	5.000倍 稀釋液	10.000倍 稀釋液
化膿性連鎖狀球菌	完全死滅	完全死滅	完全死滅	完全死滅
葡萄狀球菌(白色 黃色)	完全死滅	完全死滅	完全死滅	完全死滅
乳酸菌類	完全死滅	完全死滅	完全死滅	完全死滅
腸 炎 菌	完全死滅	完全死滅	完全死滅	完全死滅
チ フ ス 菌	完全死滅	完全死滅	完全死滅	完全死滅



虫齒와 惡疫의 黴菌을 死滅!

乳酸菌과 腐敗菌때문에 口腔에 乳酸이 發生하면 其齒의 琺瑯質의 石灰質이 녹아서 葡萄狀球菌、連鎖狀球菌이 齒의 膠質을 侵害하야 虫齒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니 安心해주십시요 上圖에 보이는바와 가티 藥用クラブ齒磨配合의 强力殺菌劑로 이러한 黴菌은 勿論이고 其他惡疫의 黴菌도 死滅시키는 故로……

專賣特許の强力殺菌劑
クロールカルヴァクロール及びヨードチモール
—配合—

H—64

産業

昨年中 輸出總額 五十五萬餘圓 比前年 六萬五千圓減少

朝鮮에잇서의 輸出品으로 자못 그前途가 矚望되는 電球는 主要한 輸出地인 印度 南洋等地의 需要에依한 排日貨에 依하야 昨年中의 輸出은 多少減少되엿는바 朝鮮輸出電球製造同業組合의 昨年中 輸出總額은 豆球의 三千四百八十九萬五千九百六十八個、二十九萬三千百六圓을最高로 合計五十五萬八百六十五圓에 達하고 잇다

이것을 昭和十二年에比較하면 六萬四千五百五十九圓의減少이나 十一年보다는 十九萬八千九百九十九圓의增加이다. 輸出地은 英國이第一位로 印度、米國、南洋、滿洲國等으로 朝鮮産品이 萬丈의 氣焰을吐하고잇다

專賣局서 煙草增産 『기자미』用葉

專賣局에서는 煙草의中骨의加工工場을 京城에設立하야 從來는버리든 中骨을버리지안코 廢物을利用하야 가늘게썰어서 이를賣造煙草에섞거 製造할터인데 이로因하야 節約되는經費가 年六十萬圓에達한다고한다

그리고 現在工事中에잇는 全州地方專賣局의 新築工場이 來年가을에 完成됨을따라 一個年製造는約十五萬個가될터이라한다

咸北鹽魚組合에서 鹽鯔工船新造 =鹽鯔需要激增에伴한= 本格的增産計畫

【咸北支社發】 鯔食糧化는 年年이 普及增加되는터이며 더욱鹽鯔의需要는 近頃激增되고 잇다 昭和十三年度鹽鯔의 全朝鮮總製造高는 十五萬圓인데 그中咸北의것이 七萬圓以上이엿다 今年들어서는 內地農村에 새로운市場을 獲得케되여 적어도 十六萬圓은 製造할方針인바 增産의 擔當者는 咸北業者라한다 이에 咸北鹽魚組合에서는 製造의 全技能을 發揮하기爲하야 夏節에 바다가운데서 곳 鹽鯔을製造할수잇는 량크船一隻을 建造할 十萬圓을 드려서 建造키로되엿다한다 이로부터 鹽鯔增産을完全實現을 보게될것이다

阿波共同補助에 拓務省이反對

遞信局은 北支航路의 擴充強化를目的으로하야 阿波共同汽船에 對하야 同社의 仁川、大連、天津航路(月二回)補助로서 年八萬圓、가리 同社의 大連、天津、大連芝罘 兩線의 寄港補助로서 年六萬圓 合計十四萬圓의補助를 昭和十四年豫算에 計上하고 拓務省에 提出하엿는데 拓務省이 朝鮮에 關係업는 阿波共同에의 補助는 無意味하다고하야 그의 削除를 强硬히 主張하야 目下 遞信局과 새이에 再折衝中이라한다

全南乾海苔 近年稀有의豊作

【木浦】 全南海苔의 今年度作況은 여러가지有利한條件으로 近年에보기드문 豊作에다가 日本內地의 凶作으로 現在品이全無하기때문에 全南海苔는 이때까지보지못한 高價인데도不拘하고 날개도치듯賣出되므로 이대로간다면 昨年內에 共同販賣高가百萬圓을 突破하지나 아니할가하고 性急한 商人은 待期하고 잇섯다는데 海苔의 단대목인 年末에 이르러서는 四十六萬三千六十六束 價額에 잇서서는 五十四萬四千八百七十三圓九十錢이라한다 그러나 束數와價額을 比較하여보면 每束에 一圓以上의 高價로팔린 故로 一圓以上 平均賣買高는 稀貴한事實이라하며 日本內地海苔作況은 依然 悲觀的故로 全南海苔는 今後에잇서 相當한 價格으로 騰貴할모양인데 想像과는 아주틀리게 年末에 海苔價格이暴落한것은 무슨理由가 잇다하야 當局에서는 그원인을조사하는바 今後一個月이 今年度海苔의大勢를 決定하므로 對策을講究하리라한다

升中粳入粒數에 依하야 全部를 律하는것으로 實際問題로서는 粳入粒數는 平均的으로 보면 一升中實로限度以外것으로 거이皆無의 狀態인바 五百袋全部의 平均에依하야 最高粒數量決定하기를 바란다는것이다

라고 하드래도 五百袋全部가 不合格處分에 附할것이나 이것은 實際는 거이 石을 밤여 無의 境遇라고 하드래도 一

全南의上級棉花 全南棉花未曾有의八割五分 出廻도자못順調

【木浦】 全南棉花共同販賣는 豫定대로 昨年末까지 總出廻數量이 二千五百萬斤에 達하엿스므로 新年에는 더욱出廻가 遲捗되리라고 期待하엿든바 降雨降雪로 乾燥가充分치못하야 共同販賣도 豫想대로되지못하엿스나 農家의 所持棉이 現在相當히잇슴을보아 日氣가回復되면 一月內에 七八百萬斤은 넉넉히 出廻하리라한다 그리고 지난七日現在 全南道內四個棉花工場의總買入數量은 二千六百二十二萬八千三百萬斤으로 이中에 八割五分가 上等棉이며 四、五等의下級棉은 겨우三百九十三萬四千三百萬斤이라는데 下級棉이 이러케 적기는 全南棉花史上에 特例라하며 七日現在買入數量을 四工場別로보면 다음과갓다한다

- 朝鮮棉花工場 一千萬五千三百斤
- 南北棉業工場 五百三十萬千六百斤
- 全南棉花工場 七百五十萬三千百斤
- 麗水本田工場 三百六十萬三千一百斤
- 總計 二千六百二十二萬八千三百斤

畜産技手配置

【豊川】 豊川地方의 有畜農家數는 農家全戶數의 七割强인데 아직까지 豊川에 畜産技手를 駐在시키지못하여 有畜農家에서는 畜産方面의 發展上支障이 不少하엿다그리하야 豊川 上里 東洞 眞鳳 雲遊 栗里 下里各面內農家에서는 豊川에 技手一名配置할 要熟을하여오는바 이問題에 對하야 郡農會長의 말에依하면 勿論豊川에 畜産技手配置의 必要는 認定하여왓스나 技術者不足으로아직까지 配置하지못하엿스나 新年度卒業生을 採用하여 一名을 配置하리라한다

白米에石混入 檢査改善陳情

丸仁穀物協會에서는 白米檢査에關하야 現行石의混入制限의檢査方法改善에 對하야 最近穀物檢査所當局에 陳情한바잇섯다 卽 現在의 石의檢査方法은 五百袋를 單位로 그中에서 十五袋를 選擇하야 各一升中三粒이잇는 境遇는 勿論 一粒잇는것이 一袋일時는 其他가 全部零又는 一粒以下의 境遇

朝鮮米生産費 中旬에協議會開催

今年度朝鮮米生産費決定會議는 一月中旬農林省에서 開催되게되엿스므로 湯村農林局長 下飯坂米穀課長及 大谷技師는 十二日東上하기로되엿다한다

豊川苹果苗木 十萬本栽培計畫

【豊川】 豊川地方은 氣候風土가 果樹栽培에 最適地로서 年年栽培가 激增되고잇다함은 累報한바이나 新春을마지하며 또來果苗木十萬本栽培計畫이 樹立되엿다는바 이는 同業界에 적지아니한喜消息이라하야 一般의期待가 자못크다한다

食糧補充과 酒精原料로 甘藷增産을計畫 目標面積千五百町步

江原道

【春川】 아프로의 新事態에對應하는 食糧補充과 酒精原料로 增産米增産計畫과 아울러 甘藷增産計畫을 樹立한다함은 旣報한바인데 最近具體的計畫이 完了되여 發表한바에依하면 明年度부터 五個年間 江原道南部와 嶺東七個郡인데 春川 江陵 三陟 蔚珍 原州 橫城 洪川等地이다 栽培面積의 擴張目標는 一千五百町步로 每年三百町步식擴張하는것으로 計畫이 完了되는 해는 四百五十萬貫의生産品을 것이다

遂行上第一念慮되는點은 各種增産計畫과 並行하게되므로 面積獲得이如意하게 될가하는點인데 昨年 田作改良增産計畫更改에依하야 粟의 減收地와 棉花의生育不適當地와 또는 麥間作 其他休閑地를 利用하게된것이다 첫해에 種藷가 四萬五千貫가 량 所要되게될터로 어數量의半分을 道에서 補助하며 남어지는 農家負擔과 또는 郡農會에서 補助하게 되얏다하며 各郡에서 栽培할 目標面積은 다음과갓다

春川二五〇町 江陵二〇〇町 三陟二〇〇 蔚珍一五〇 原州二五〇 橫城二〇〇 洪川二五〇 計一五〇〇

商品市勢 十一日

▲果實類

品名	單位	價格	
梨(早生赤)	三貫五	[illegible]	[illegible]
同(今村秋)	三貫五	[illegible]	[illegible]
同(晚三吉)	同	[illegible]	[illegible]
蜜柑四箱		[illegible]	[illegible]
紅玉(鎭南浦)	四貫	[illegible]	[illegible]
同(大邱)	三貫	[illegible]	[illegible]
國光(大邱)	三貫	[illegible]	[illegible]
同(鎭南浦)	四貫	[illegible]	[illegible]
레몬	一貫	[illegible]	[illegible]
金柑		[illegible]	[illegible]

▲海産物

品名	單位	價格	
乾明太新(元山一馱)		[illegible]	[illegible]
同(西湖津同)		[illegible]	[illegible]
同(退潮同)		[illegible]	[illegible]
同(前津同)		[illegible]	[illegible]
鹽古同魚百手上品	中品	[illegible]	[illegible]
生刀魚百尾	大 中 小	[illegible]	[illegible]
乾大口(元山)	百斤	[illegible]	[illegible]
同(北海道)	百斤	[illegible]	[illegible]
烏賊魚	百斤	[illegible]	[illegible]
新生大口	一箱	[illegible]	[illegible]
明太子	一桶五貫	[illegible]	[illegible]
明太子(咸南産)松印	一樽	[illegible]	[illegible]
同 竹印	一樽	[illegible]	[illegible]
同 梅印	一樽	[illegible]	[illegible]
生明太 同	一馱	[illegible]	[illegible]
江原道新乾明太	大一馱	[illegible]	[illegible]
中 小		[illegible]	[illegible]
靑魚		[illegible]	[illegible]

▲菜蔬

品名	單位	價格	
生靑魚(浦項産)(統營産)	一級 鮑子大 十貫	[illegible]	[illegible]
同 中羽	同	[illegible]	[illegible]
同 小羽	同	[illegible]	[illegible]
海苔 河東産 天印	四十束	[illegible]	[illegible]
地印	四十束	[illegible]	[illegible]
光陽産 雪印	四十束	[illegible]	[illegible]
月印	四十束	[illegible]	[illegible]
白菜	十貫	[illegible]	[illegible]
玉葱	十二貫入一個	[illegible]	[illegible]
白葱	一貫	[illegible]	[illegible]
土蓮	同	[illegible]	[illegible]
甘藷	同	[illegible]	[illegible]
馬鈴薯	同	[illegible]	[illegible]
玉菜	同	[illegible]	[illegible]
酢蕃石油箱	十個	[illegible]	[illegible]
長大根		[illegible]	[illegible]

(京城農會社調査)

▲農産加工品

品名	單位	價格	
麥粉(眞田軍四選朝鮮産反)		[illegible]	[illegible]
木眞田內地産	一貫	[illegible]	[illegible]
杞柳朝鮮産	同	[illegible]	[illegible]
帶草朝鮮産	同	[illegible]	[illegible]
漆朝鮮産	同	[illegible]	[illegible]
椎茸朝鮮	同	[illegible]	[illegible]
桔梗內地(黑皮)	一斤	[illegible]	[illegible]
桔梗〃(白皮)	同	[illegible]	[illegible]
乾蕨內地	十貫	[illegible]	[illegible]
乾蕨朝鮮産	百斤	[illegible]	[illegible]
荏子油	同	[illegible]	[illegible]
胡麻油	同 一罐	[illegible]	[illegible]

▲穀用叺及繩

品名	單位	價格	
蓖麻子油 內地	同	[illegible]	[illegible]
桐實油 木浦	同	[illegible]	[illegible]
白絞油 內地	同	[illegible]	[illegible]
乾蓮根 朝鮮物	一斗	[illegible]	[illegible]
고사리 朝鮮産	百斤	[illegible]	[illegible]
干瓢		[illegible]	[illegible]
蕃椒 朝鮮産	百斤	[illegible]	[illegible]
同 刻 各地	同	[illegible]	[illegible]
同 粉	同	[illegible]	[illegible]
麥粉二廛 京城三庇		[illegible]	[illegible]
同 三廛	〃	[illegible]	[illegible]
同 日之出印	〃	[illegible]	[illegible]
馬鈴薯澱粉 北海道	十二貫	[illegible]	[illegible]
澤庵 內地	一樽	[illegible]	[illegible]
柿	島三斗五升	[illegible]	[illegible]
木茸	百匁	[illegible]	[illegible]
煮草入叺	一枚	[illegible]	[illegible]
栗虫巢	同	[illegible]	[illegible]
千切大根	十貫	[illegible]	[illegible]
落花生油 內地	一罐	[illegible]	[illegible]
大豆油	同	[illegible]	[illegible]
指定價 京畿	一枚	天	地
群山	同	[illegible]	[illegible]
忠南	同	[illegible]	[illegible]
慶北	同	[illegible]	[illegible]
慶南	同	[illegible]	[illegible]
榮山浦	同	[illegible]	[illegible]
寶價全南	同	[illegible]	[illegible]
京畿	同	[illegible]	[illegible]
繩(袋繩十五키로)	白米 自一分至二分八厘	[illegible]	[illegible]
穀用叺(玄)	米 自四分至四分五厘	[illegible]	[illegible]
叺繩		[illegible]	[illegible]

▲肥料

品名	單位	價格	
石灰窒素(一月各渡値)		[illegible]	[illegible]
硫安	同	[illegible]	[illegible]

▲家畜飼料

品名	單位	價格	
硫安	同	[illegible]	[illegible]
過燐酸	同	[illegible]	[illegible]
加里	同	[illegible]	[illegible]
安東豆粕	一枚	[illegible]	[illegible]
豊年大豆粕	一月限	[illegible]	[illegible]
胡麻油粕	百匁	[illegible]	[illegible]
硫化燐安	一〇貫	[illegible]	[illegible]
加里安	同	[illegible]	[illegible]
過燐酸(沖渡)	同	[illegible]	[illegible]
安燐加(現物軌道渡)	十貫	[illegible]	[illegible]
地和化成肥料(現物渡)	十貫	[illegible]	[illegible]
粉末配合 産卵鷄用	二二五斤	[illegible]	[illegible]
同 雛用		[illegible]	[illegible]
同 中雛用		[illegible]	[illegible]
同 三種配分粉餌		[illegible]	[illegible]
成鷄用四種配合粒餌		[illegible]	[illegible]
同 三		[illegible]	[illegible]
初生雛用完全配合飼料	一〇斤	[illegible]	[illegible]
辛마(丸)		[illegible]	[illegible]
玉蜀黍	(中割)	[illegible]	[illegible]
同	(粉末)	[illegible]	[illegible]
同	(丸)	[illegible]	[illegible]
高粱	(粉末)	[illegible]	[illegible]
同	五斗	[illegible]	[illegible]
玄米	〃	[illegible]	[illegible]
屑麥	〃	[illegible]	[illegible]
大麥	七五斤	[illegible]	[illegible]
無砂糖	一〇斤	[illegible]	[illegible]
骨粉	十五貫	[illegible]	[illegible]
魚粉	一〇斤	[illegible]	[illegible]
가리	八五斤	[illegible]	[illegible]
히비스	一〇貫	[illegible]	[illegible]
干鰯粕		[illegible]	[illegible]
三菱配合完全(中雛用)	一二五斤	[illegible]	[illegible]
成鷄用	特一二五斤	[illegible]	[illegible]
同 〃	一號	[illegible]	[illegible]
三井成鷄用	同	[illegible]	[illegible]

▲農藝藥品

品名	單位	價格	
同 中雛用日配	二號	[illegible]	[illegible]
同 初雛生用日配	一號	[illegible]	[illegible]
同 成鷄基礎飼料	一〇〇斤	[illegible]	[illegible]
同 三種混合粒	一二五斤	[illegible]	[illegible]
同 三種粉飼	同	[illegible]	[illegible]
同 魚粉(特上)	二貫	[illegible]	[illegible]
砒酸鉛	一封度	[illegible]	[illegible]
改良가제인	〃	[illegible]	[illegible]
데리스石鹼	五百瓦	[illegible]	[illegible]
마시겔드-보르도-1	一封度	[illegible]	[illegible]
除虫菊	一封度	[illegible]	[illegible]
블리키-푸롬%	一罐	[illegible]	[illegible]
結晶硫酸銅	一〇〇斤	[illegible]	[illegible]
粉末 同		[illegible]	[illegible]
生石灰	四貫	[illegible]	[illegible]
골드리-푸	二百度	[illegible]	[illegible]
상게이粉狀데리스	一五瓦	[illegible]	[illegible]
驅虫用煙草粉	一貫	[illegible]	[illegible]
쿠레오소-트	一罐	[illegible]	[illegible]

▲家畜類

品名	單位	價格	
鷄卵	一貫	[illegible]	[illegible]
米國種	同	[illegible]	[illegible]
生鷄	同	[illegible]	[illegible]
生豚	百匁	[illegible]	[illegible]
鶩鳥	百個	[illegible]	[illegible]
蜂蜜	十羽	[illegible]	[illegible]
四季鳥卵	一罐	[illegible]	[illegible]
豚毛(原毛)	百個	[illegible]	[illegible]
同(撰毛)	百斤	[illegible]	[illegible]
鷄羽毛	一羽	[illegible]	[illegible]
羽	一貫	[illegible]	[illegible]
雉	一羽	[illegible]	[illegible]
鴨	一羽	[illegible]	[illegible]

(朝鮮畜業協會調査)

賀正

牙山郡教育會

牙山郡道高面 面長 李萬鍾 外職員一同

道高水利組合 職員一同

溫陽溫泉 三環農園 電話一二番

新昌面事務所 面長 姜璋熙 外職員一同

南鮮電氣株式會社 溫陽出張所

溫陽水利組合 職員一同

靈仁面新華里 河範瑞

新昌面協議員 元之勳

松岳面外岩里 喪中欠禮 李伯善

溫泉精米所 主 趙南俊 電話一〇五番

排芳面協議員 許均

牙山郡陽井面權谷里 青年團員一同

松岳面長 李用琦

排芳面中里 元容稷

溫陽溫泉 金在元

牙山郡廳

溫陽警察署

溫陽溫泉 溫陽酒造株式會社 電話二〇番

朝鮮料理 太西館 主 金今培 電話三七番

朝鮮料理 泰平館 主 金喜瓊 電話二三番

溫陽精米所 主 金聖煥 電話三八番

溫陽醫院 醫師 李聖禹 電話大大番

湯井面協議員 崔順七

陰峰面長 趙成默

靈仁面牙山里 鄭憲祖

溫陽溫泉 金明植

牙山酒造株式會社

溫陽面事務所 職員一同

溫陽溫泉 元得巡

海陸物産 食料雜貨 各種石油 有名賣藥 忠南牙山郡牙山市場 中央商會 主 南柱元

陰峰面山亭里 金容珪

溫陽溫泉 東一商會 李炳夏

丹城

山清郡丹城面南沙里 崔載鶴

山清郡丹城面江樓里 權雲鉉

山清郡山清面兵谷里 姜文祚

山清郡守 玄懿燮

山清郡丹城面南沙里 李鏞圭

山清郡農會

山清郡丹城面 職員一同

山清郡丹城面南沙里 李道午

山清郡新等面丹溪里 慶南道議員 鄭鎬德

山清郡新等面丹溪里 金昌銖

山清郡新等面丹溪里 柳海珪

山清郡生比良面 職員一同

山清郡新等面上法里 鄭煥璋

山清郡丹城面城內里 李靖相

山清郡丹城面召南里 趙在厦

山清郡丹城面虎里 鄭道時

山清郡新等面丹溪里 李百祚

山清郡丹城面虎里 鄭益時

山清郡丹城面堂山里 河侃

山清郡新等面丹溪里 文繪龍

山清郡今西面梅村里 李圭昌

山清郡今西面特里 溫鉉煥

山清郡生比良面道田里 朴淺鍾

山清郡生比良面道田里 權載允

山清郡丹城面梁陽里 許彰昊

丹城金融組合德山支所 副理事 裵敬希

三莊面職員一同

德山産業組合職員一同

山清郡矢川面職員一同

山清郡矢川面絲里 喪中欠禮 曺元相

山清郡丹城面召南里 趙在驛

山清郡警察署長 盧月壹也

山清砂防事務所

山清郡 新安面職員一同

丹城金融組合

山清郡丹城面南沙里 崔載沂

山清郡丹城面默谷里 李大燮

山清郡丹城面沙月里 李人根

山清郡丹城面沙月里 李龍洙

山清郡新等面丹溪里 朴海柱

山清郡新等面丹溪里 新興醫院 主 崔胤陽

山清郡新等面丹溪里 光信理髮館 主 高光燮

山清郡新等面丹溪里 尹漢舜

山清郡山清面內里 李鍾鐸

山清郡新等面可述里 金錫進

山清郡丹城面倉村里 白南佑

山清郡丹城面倉村里 李敎允

山清郡丹城面官亭里 權醸造場 主 權再興

山清郡丹城面堂山里 閔台性

山清郡丹城面虎里 鄭顯預

山清郡丹城面虎里 鄭昌時

山清郡丹城面虎里 鄭學成

山清郡新安面長竹里 李瑒奎

山清郡生比良面道田里 權會伯

山清郡生比良面道田里 沈相淑

山清郡丹城面沙月里 金祐達

山清郡丹城面南沙里 李晦根

山清郡丹城面南沙里 李錫圭

山清郡生比良面道田里 李相洛

山清郡生比良面道田里 權二善

山清郡丹城面默谷里 李佑燮

山清郡丹城郡默谷里 李志洛

山清郡丹城面召南里 趙龍來

晋州郡大坪面大坪里 鄭元永

山清郡矢川面新川里 鄭泰根

山清郡矢川面絲里 醸造場 主 鄭炳基

山清郡三莊面大浦里 成甲柱

山清郡三莊面坪村里 姜太守

山清郡矢川面內公里 曺敬奉

山清郡矢川面中山里 許在碩

山清郡丹城面江樓里 醸造場 主 崔尙敏

山清郡丹城面江樓里 權泰根

河東郡玉宗面中台里 鄭萬根

河東青岩面 金永洛

山清郡三莊面坪下里 曺柱煥

山清邑內 吳戊祥

山清郡今西面梅村里 黃雄周

山清郡今西面長 吳在俊

山清邑內 趙仁守

山清郡山清面長 金其正

丹城小學校南沙分敎場 訓導 白光釗

山清郡三莊面坪村里 崔錠秀

山清郡德山市 綢緞布木魚鹽肥料雜貨商 主 金泰萬

山清郡丹城面默谷里 沈在賢

山清郡矢川面絲里 李元玉

山清郡德山市 綢緞布木雜貨商 主 姜三俊

山清郡丹城面南沙里 鄭昌和

山清郡丹城面南沙里 崔洛輝

山清郡新安面中村里 都鎭德

山清郡丹城面堂山里 李曾壽

山清郡丹城面梁陽里 金宗鉉

山清郡丹城面南沙里 崔奎煥

鎭興

永興郡憶岐面龍湖里 龍野學院

美陽里 美興學院

鎭坪面翰洞里 翰興學院

乾川里 乾明學院

永興郡 鎭坪面事務所 職員一同

仁興面事務所 職員一同

憶岐面事務所 職員一同

永興郡憶岐面德下里 面協議員 黃芝洙

食料品 雜貨 賣藥 有名 國泰商店 回春堂藥房 主 李國一

永興郡古寧面青龍里 李元翊

永興郡順寧面仁興里 朱應煥

鎭興和信

咸鏡線馬場驛前 朝鮮穀酒穀物貿易委託販賣 馬場釀造場

永興郡虎島面新興里 區長 李枝淳

永興郡鎭興市 半島醫院長 醫師 安如松

永興郡虎島面葛古時里 韓景常

永興郡古寧面蘇老里 水産業 陳陳鎔 蘸俊冕

永興郡古寧面新興里 綢緞布木 白賢相商店

永興郡虎島面葛古時里 趙璟萬

永興郡虎島面斗武里 崔秉贊

永興郡憶岐面龍湖里 鄭昇浩

柳島捕魚組合 猪島捕魚組合

憶岐面九灣里 九灣水利契

憶岐面 九灣水利契

憶岐面兩灘水利契 裵鼎三 裵容欽

永興郡憶岐面龍湖里 龍野學院 鄭泰南 鄭煥一 鄭賢得 鄭一和

憶岐面三岐水利契 朴璣淳 張相弼

永興郡憶岐面德美水利契 尹喜冕 張南七

永興郡憶岐面龍湖里 龍湖水利契 鄭昇浩 李桂潤

永興郡憶岐面 栗山水利契

鎭坪面天皇里 寶幕金山

文川郡明鋼面 私立新進學校

永興郡鎭興市 亞細亞洋裝社

朝鮮咸南永興郡鎭興市 洋品百貨 鄕土産物 龍興商店

永興郡鎭興市 東一理髮館 主 李泰燮

朝鮮咸南永興郡鎭興場 永一洋品店 主 尹好鎭

鎭坪面翰洞里 小德金山

永興郡虎島面原平里 濟生醫院 醫師 車南正

憶岐面 瓦隅水利契

永興郡仁興面松柏里 黃元寶

永興郡鎭興場 公醫 乙部勇

永興郡鎭坪面翰洞里 金相愚

永興郡鎭坪面翰洞里 元鍾洛

永興郡鎭坪面新豊里 張致鉉

鎭興市鎭興商店 綢緞布木 韓弘傑

咸南永興郡鎭興市 鎭興洋服店 主 許寬五

永興郡蘇老里 精米所 陳明 陳龍 陳斌信

咸鏡線馬場驛前 大盛堂藥房 主 金榮濟

永興郡鎭興市 穀物貿易 徐炳濟

永興郡鎭興市 綢緞布木 黃載寶

永興郡憶岐面仁興里 鎭興金融組合長 金瑨相

永興郡鎭興市 食料雜貨 兄弟商店 李根成

永興郡虎島面德興里 朱炳鉉

永興郡虎島面原平里 平壤醫院 醫師 韓起洙

永興郡古寧面蘇老里 陳道濬

永興郡古寧面蘇老里 陳明哲

永興郡虎島面原平里 原一商店 綢緞布木 尹煥哲

鎭坪面新豊里 相浦

永興郡虎島面原平里 千代田生命保險會社 虎島駐在 張敬淳

永興郡虎島面原平里 金永傑

咸鏡線馬場驛前 布木商 兄弟商店 主 洪淳吉

朝鮮永興鎭興場 鎭興堂藥房 主 趙河允

鎭興市 麵屋 鄭元吉

永興郡鎭興市 雜貨商 元衡商店

咸鏡線馬場驛前 大盛堂藥房 主 金榮濟

永興郡鎭坪面天皇里 金貞武

永興郡虎島面原平里 出張所咸南元山退潮呂湖 金承一本店

永興郡虎島面舊獅里 韓在衡

咸鏡線馬場驛前 司法書士 李東宣

虎島面巢鷹津 金斗萬

永興郡憶岐面龍湖里 區長 陳寬祚

永興郡憶岐面栗山里 金丙吉

永興郡鎭坪面翰洞里 全成道

永興郡鎭興 趙炳洛

永興郡鎭興市 萬福洋服店 主 諸萬岩

大同農村社永興農場 金常根

平山溫泉

絹布百貨 益申商會

諸品百貨 洋品食料 海州商會

綢緞寶藥 布百石貨油 蔡明根商店

洋品百貨 申泰山商店

積岩郵便所長 黃海道平山溫泉 李圭星

積岩面事務所 職員一同

鶴泉 尹順得

朝鮮旅館 主 吳弼洪

司法書士 申健

黃海道平山郡平山溫泉 海平醫院 公醫 李惠源

錦山

錦山邑內 南信人蔘商會 主 郭在燮

有志 崔在駿

鮮南倉庫株式會社 錦山支店

모밀떡에中毒되여 一家族五名即死
原因은腐敗된植物性中毒인듯
鐵原郡畝長面下慘變

【鐵原】 신정의도소주기운이 채 깨이지도안흔이때 모밀떡에 중독되여 일가족 오명이 즉석에 서사망하고 주인일명만 생존한 참혹한 사실이 철원(鐵原)군에 발생하엿다

탐문한바에 의하면 철원군묘장면대마리(畝長面大馬里)사백삼십팔번지에사는 김고미(金古未)(三一)는 지난구일 오후한시반경 모밀나게에 찌지를섯거 떡을맨들어 일가족 여섯명이 먹엇든바 오후다섯시반경부터 일가족 전부는 복통을일으켜 구토설사를하야 전기김고미의모친 최씨(崔氏)(六○)를 비롯하야 그의처 신흥진(申興振)(三二)과 셋재딸 권순(權順)(二) 장남 동춘(東春)(五)등 다섯명은 불과세시간 사이에 그자리에서 참혹하게도 전부사망하엿다하며 불행중다행으로 주인인 전기 김고미는 생명만은 건지리라는바 중독된 음식물인 모밀나게는 약한달전에 이웃집의 김장을 해주고 어더온것이라는데 그당시에 음식을 맨들어 먹고 조금남은것을 두엇든바 쥐가드러와먹고 뚝을만히 누엇기에 마자엇서지기전에 그것을 그냥정심으로맨들어 먹고 그와가티 근래미문의 처참한 참사사건을 이르키엿다는데 중독된원인은 모밀나게가부패되야 잇는것을모르고먹은까닭으로 식물성 중독된것갓다는바 일반가정에서는 음식물을 저장하는데 주의하여야할것이라고 되야 될수잇는한 쥐를 잡어업새는것이 제일긴요한 방법이라한다

子息의죽엄悲觀 六十老人自殺

【月井里】 사랑하는 아들과며누리가 자살을한후 이를를 비관한아버지가 세상에살어맹이엇다고 목을매여 자살을하엿다는참극이잇다 철원군어운면 중강리구월정(鐵原郡於雲面中江里舊月井)에사는 황근수(黃根洙)는 어느주점 잡부와사랑을 속삭이다실연을당하야 이를비관하나머지얼마전부근 수리조합 간선에투신자살을하자 안해김옥녀(金玉女)도 남편을따라 수중고혼이되고 말엇스므로 그아버지되는 황효영(黃孝永)(六○)은 사랑하는자식과 며누리가자살을한후 항상이를비관하야 지난구일새벽에 목을매여 세상을떠낫다고한다

灘川面傷人强盜 公州署로押來

【公州】 수일전충남공주군탄천면가척리(公州郡灘川面加尺里)뒤산골자기에서 통행인을 칼로찔르고 현금이십사원을 강탈도주한 사건이잇서 당지경찰서에서 범인체포에 활동하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전기범인은 청양군청장면아산리(靑陽郡靑場面牙山里)에주소를둔 이용순(李龍淳)(二一)은 판명되야 지난오일에 청양군목면(靑陽郡木面)모처에서 잠복한것을 청양경찰서원이 무난이 체포하야 지난십일에 공주경찰서로압래하엿는데 범행사실을들어보면 전기강도이용순은 작년십이월십이일오후팔시경에 피해자전북익산군망성면화산리(益山郡望城面華山里)에 주소를둔 한영조(韓永兆)(四一)를동무인하야 전기탄천면가척리(灘川面加尺里)산골작이에서 현금이십사원을 가진것을알고 강탈코저 칼로부상을시키고 금전을강탈도주한것인데 절도전과리고한다

瑞山에窃盜一件

【瑞山】 충남서산읍내 적정(赤井)상점과 충옥인 양모(楊某)상점에 지난팔일새벽네시경 절도가 침입하야 시까약유백여원 상품을 가저갓다는데 년말년시 경계에 대단히 성적이 양호한 서산경찰은 실색하야 범인을엄탐중이라고한다

[illegible]

평북초산군하·경흥뭇(?山里)김참봉(金參奉)이란 육십먹은 노인이 정신병으로 저도랫다는것은 노망으로나 돌릴수가 잇것지만

◇

아들며느리까지다리고 남의집사리를가는데가 망둥

◇

이러가정에 뭇따는당연 노인이발견한 평회대책은 전자식을 죽여버리려는 우게

◇

가정단란은커녕 웃지정신세까지 지게되엿다는 웃지못할이야기 (新義州)

少幼年스키—大會 二月中旬元山에서

【元山】 스키—열의고취를 위하야 조선스키—연맹에서는 이월중순경 원산에서 소년유년(少年幼年)의 전조선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엿다는바 연령별은 소년십세로부터 십사세 유년은 칠세로부터 십세까지라고한다

豫算查定通過로 防波堤工事實現
大端川建設案着着進捗!

【咸南支社發】 함남도의 대기사업인 대단천(大端川)의 기획은 루보와가티 착착진행하고잇는데 이중 국비로 시행할방파제(防波堤)공사는 그예산안도 대장성의사정을 통과하얏스므로 명년도부터 사개년계속으로 시행키로 결정되얏다고한다 총공사비는 사백삼십오만원으로 명년도는 사십오만원 그다음사년동안은 각각 일백삼십만원식으로 그계획안이 섯다고하는데 금춘부터는 축과 가튼이대공사도 착수의 첫거름을 내듸드게되얏다

忠北小學校長會議 二月中旬頃開催

【忠北支社發】 충북도학무국에서는 조선교육령개정후 처음으로도내 소학교장을 소집하야 오는이월중순경 삼일간에공하야 도청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되엿다는바 다음과가튼사항을 협의한다고한다

一、教學刷新上 教育者의精神을 昂揚振作케할具體的方策

一、東亞建設의重大時局에 鑑하야銃後의責務를 完全케하기爲하야學校에서 實施하고 잇는 事項과將來의 計劃、何

鑛夫三名死傷 全寶金山火藥爆發로

【全南支社發】 구일오후세시반경에보성전보금산(全寶金山)에서작업중화약이 폭발되여 광부장성군북이면사거리(長城郡北二面四街里)사는김홍렬(金洪烈)(三七)은참사하고 보성군문덕면봉소리(寶城郡文德面鳳沼里)사는황점전(黃占全)(三○)외일명은 생명이 위독하다한다

寅目面民食水難

【伊川】 강원도 철원군 인목면(寅目面)사무소 소재지에는 근일 우물이말러서 이백여호주민들은 먹을물을 기르려 이십정가량되는곳으로 남녀가 물지게를 지고다니는데 면당국에서는 하로바삐 주민들의 음료수의원활을 기할방침으로 수리하야주기를 바란다고하며 간혹마른지안흔 우물은 전부가 수질이불량하야 위생상 일대위협을 밧게되므로 일대문제가 되여잇다고한다

大田地方에地震 數年來初有의强震

【忠南支社發】 지난십일오전열시사분경 충남도대전(大田)부근에는 수년래처음보는 대폭강진의 지진(地震)을보앗는데 진동시간은 약삼십초로 조선서이와가튼 강진을 본것은드믄일이라고한다

清州서도强震

【忠北支社發】 청주지방에는 지난십일 오전열시팔분경 약이십초동안이나 문고리가 흔들리는 정도의 지진이 잇섯다는바 동지진은 근년에업든 이지방에서는 상당히 강한지진이엿다고한다

保寧에도地震

【保寧】 보령군대천지방(保寧郡大川地方)에는 십일오전십시십분에지진(地震)이일어나서 문고리가 덜렁거리고 구들장이 들먹거리다가 약일분간후에 끗처섯다는데 그와가튼 지진은 근년래처음이엇다고한다

碇泊中荷船火災 損害額이八千圓

【全南支社發】 구일오전열시십분경에 여수항에 정박중의 부산광본기선주식회사(釜山光本汽船株式會社)소유 부산여수간의정기회물선인 삼광환(三光丸)(이백오십팔톤)은 선실에서 독연발화가되여 소동을하다가 동열한시반에 겨우진화하엿는데 손해는 약팔천원가량이며 인명사상은업고 원인은 현재조사중이라한다

平北對岸漸明朗 共匪跋扈는逐日退勢

【新義州】 평북대안에서 익시조량하야 강안의 주민을위협하던 공비(共匪)는 국경경비진의 강화와 제일선당국자의 신명을도하야 분투노력한결과 그들는점차 조락의일로를 것고잇다한다 현재대안통화성내에잇는 그들의 수효는 만강(漫江)을 근거로하는 김일성(金日成)과 송전령자(松甸嶺子)를 근거로하는 양성우(楊成宇)와 그외 왕봉각(王鳳閣)의 잔당 칠팔십명을 합하야 총세이천명내외로 되엿다한다 그런데이들도 선만군비(鮮滿軍匪)의 구성으로 불원섬멸되리라고한다

無名青年百圓獻納

【咸從】 지난칠일오후남강서군함종시(咸從市)에서 양조업하는허억(許億)씨의사남허종(許琮)(二○)군은금번자기가정에서세말년초에허례비용백원을 절약하여 지금 지나에서 성전하는 황군장사에게 헌납하여달라고 소활면사무소에와서기탁하엿슴으로 그면장은 씨의성의를 칭찬하는동시 그돈은곳 강서군청을 경유하여 헌납하엿다한다

◆(사진은 고지군의 개간광경)◆

우리道의 新年提議 ⑩
全北農村特有의 雇只制度란어떤것?
雇只軍整理策은當局의宿題

全北道篇

전북농촌에잇서서 토지이용급소유의형태는 농업기술의 미발달등으로인하야 소농경영과 소작농이 대부분으로 근대적 대농제(大農制)로 발달하기에는 전도요원한바가잇스나 화폐경제(貨幣經濟)의대두와아울러 내지자본이 농토개발을 단행한후 필연적으로 지방적부농(富農)이발생하게되고 토지의집중이 시작되여 지금에는 처처에 집약적(集約的)대농장이 출현하게되고 대부분의농민들은 농토를가지지못하야 자작농은 소작농으로、소작농은 남조선 특유의농업노동자 즉고지(雇只)군으로 전락하는경향에잇다 그뿐아니라 고리대금자본의 농촌지배가 강화되는일면에 현금을필요로하는농작물의생산은 고리차금의중압으로그들의생활은 편우지못하게되는형편이다 물론 이에대하야서는 당국에서도근대적법제로서억제를하고 건실한농촌진흥을 계획하고잇다할지라도 의연소작관계에는 다종다양의중세기적의무공납노역(中世紀的義務貢納勞役)등이 부대하고 특히 남조선지방에는반농노(農奴)비슷한농업노동자고지군까지 잔존하여잇는 현상이다 즉농촌을무대로하야 자본을 축적한 지주들이 상인 고리대금업자들이되고 도 상인 고리대금업자들이 지주가 되기도 하엿다、환언하면 지주 상인 고리대금업자의삼자로서 농촌을지배하고잇다

전기와가튼 모든사정으로 농토를가지지못한농민이 날로증가하고잇스나 도시의공업발달이 지지한조선에서 토지를가지못한농민들이 도시노동자화하지못하고 해외이주도는 부랑민화하는현상이다 여기서 전북농촌의양인농시에 농촌진흥상으로는 물론일반사회적책상으로도 난문제의하나로서 고지군의퇴치문제가 시급한과제로되여잇다

이제 도내인구주세를 살펴보면 소화십이년말현재 총호수 이십구만팔천이십오호에 총인구백오십삼만이천이백사십구인으로 본도면적팔천오백오십사평방키로에 할당하면 일평방키로 인구밀도가 백팔십명으로 내지평균인구밀도보다 초고하편이다 그런데 이인구를흡수할 각종의 생산관계도 내지에비교하야 아직미발달할뿐아니라 금후인공발달예외하야 다소의희망수잇다할지라도 기후풍토등 자연적조건과 사회적모든관계도 포화상태에잇는 이인구를 흡수하지못할것이다

그리고 본도의농가호수는 이십삼만육천사백사십오호라는 수자에 달하고잇스나 그경영의 기초인 경지면적은 이십사만오천정보에 불과하는 형편으로 이것을 각농가에평균히 할당한다면 일호당경지면적 일정삼묘가량이되여 그협소함이 일본내지에 필적하는현상이다 공업기타 각산업분야가 아직발달되지못한 조선농촌에잇서서 일본내지농촌과가티 경지면적이 협소하다는것은 농민경제에중대영향을미치게하는것이 되고한다 그뿐아니라 이농가들을 자작농 자작겸소작농 소작농급 농업노동자의 각계급으로 구분하야 과거십년간의 추이를보건데 자작농은 매년일천오백호 자작겸소작농은 매년일만삼천오백호식감소되고 이에반하야 소작농과 농업노동자는 격증하는현상이다 그리고경향의 수년수가 각각증가하는편으로 소작농급농업노동자증가에 따라서소작지의쟁탈은 소작지의경쟁을 보게되야 오정보대지 이십정보이상의 경지면적을 가진 소작인이오천호에비하야 오단보미만의 농가가 십사만칠천백여호로 전농가호수의칠할을 차지하고 농업노동자호수는 이만오백십오호를 돌파하고잇는 현상이다 그리하야 이추세는 금후의증가를 모든관계로 인하야 더심하여질것이예상되는바 영농개선흑은 각종농산물의 개량의식을통하여 어느정도까지 외화획득도가 잇다할지라도 근본원인을 제거하지안코 고식적방법만으로는 그목적을 달하기가 어려울것갓다 이상을 요약하면 농토기근을 당하고 잇슴에도 불구하고 소기모농산경영과 구식농업기술이 원인으로 농업생산력을 증진하는데 방해하지못하는가면 일부토지에한한 지주들의 가혹한 소작료징수방법과 더구나 비료대 기타 배급에대한 고리대금까지 하게되므로 농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되는 현상이다 (계속)

—(全北道農務課提供記)—

長篇小說
林巨正【199】
洪碧初作　金熊超畫

평산쌈 (三九)

청석골 꺽정이는 순우나흘날 저녁때부터 광복까지 서림이 오기를 헛기다리다가 오지안는데 화증이나서

「요런 사람이잇나 내가 떡먹듯기 열렷는데 오늘 아니오니 무얼 믿구 내말을 어기나 나중 어디 보자」

서림이가 오기곳하면 거조를 단단이 낼것가티 별렷다 꺽정이를 뫼시고안젓든 여러두령중의 박유복이가 서림이 두던보다도 꺽정이 위안으로

「내일아침 떠나시기전엔 오겟지요」

하고 말하며

「내일아침에 꼭 올거슨 네가 다짐할테냐」

꺽정이가 큰눈을 희자루서이로 뜨고 흘겨감조로 말을하는것이 잘못하다가는 애매하게 회통이를 바랏것 가테서

「남의일을 제가 다짐이야 엇더캐합니까」

하고 뒤를뺏다 덕은두령들은 물계를 보고 잠자코 잇는데 눈치업는 꽉오주가 비꼬아 하는 말로

「서종사가 안오면 봉산원은 다 잡엇구먼이요」

하고 말하야 꺽정이는 화가 복바처서

「되지못한소리 지꺼리지말아」

하고 소리를 질럿다

「내가 무얼 잘못햇소 왜 내게다가 화를내시우」

「말대답 말아」

「형님이 서종사말을 곳이듯기실라」

「형님이 아무래 야단을 쳐두 내가 하구시픈말은 다해야겟소 서종사말을 형님이 너무 미드시는게 병이닙다 나는서종사가 오늘 오지안흘줄 미리 다 알엇소」

쇠미미련가튼 꽉오주가 말을 불쑥불쑥하는데 꺽정이는 화가 꼭뒤까지 올라서

「아가릴 찌저노키전엔 가만이 닥치구잇지못하겟느냐」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럿다 아닌밤중에 큰야단이 나는줄 알고 밧게서 술렁거리기까지하얏스나 박유복이는 꽉오주가 말대답을 더못하게 욱박질르고 리봉학이는 꺽정이가 화를 가러안치도록 애를써서 이이상 더 야단은 나지안코 말앗다

이튼날 식전에 꺽정이가 박유복이와 꽉오주와 한온이는 오가와가티 청석골에 남아잇게하고 황천왕동이는 봉산가서 라혹례의 발정일짜를 분명히 알고 마산니로 오라고 따로 떠나보내고 리봉학이 배돌석이 길막봉이 김산이 네두령을 다리고 마산니로 떠나가는데 남아잇는 두령 넷중의 오가만은 도회청아페서 작별하고 들어가고 그외 세두령은 다 서산 동갱이우에 까지 따라나왓다 박유복이가 꺽정이에게 하직절을하고나서

「서종사가 오늘이구 내일이구 오거든 곳 마산니루 보낼까요?」

하고 물으니 꺽정이는 중을내며

「보낼것업다 고만둬라」

하고 말하얏다 좀게 하나가 동갱이우로 쫏치 올라오는것을 한온이가 어느결에 보고

「저게 누구까」

하고 말하야 여럿이 작별인사들을 하다가말고 나려다보고 섯는중에 동산파수군의 패두가 헐레벌떡거리며 올라와서 허리를 굽신굽신하고

「대장께 알외옵니다 지금 송우김선만이집 심부름군이 들어왓습는데 서울서온 급한편지를 가저왓다구하옵니다」

하고 한손에 들고온 편지봉을 두손으로 내바치엇다 꺽정이가 리봉학이더러 바다서 뜨더보라고하야 리봉학이가편지를 뜨고

「남대문밧 김치선이의 편지구먼이요」

하고 뜨더서 보다가 깜짝 놀라며

「형님 큰일낫습니다」

하고 꺽정이를 돌아보앗다

「무슨일이야」

「서종사가 엇그제 잡포청에 잡혓답니다」

서림이 잡혓단 소식에 꺽정이와 여러두령이 다가티 놀랏다

「어떠케하다가 잡혓서?」

꺽정이 몸시급함에

「수표교 천변에 사는 최가에게 상곡을 처대하랴구하다가 최가 밀고에 잡혓다구하우 치선이 사기루 지금 피신해서 숨어잇는중이라는데 일이 급하면 이리 오는수밧게 업다구햇습니다」

리봉학이가 다시 편지를들려다보며 대답하얏다

「수표교 천변에 사는 최가가 누구까?」

「글세요」

「남소문안 최가가 그동안 수표교루 이사를 갓나?」

한온이가 아프로 나서서

「집에잇든 최서방이면 설마 밀고를 햇슬까요」

하고 말하며 고개를 한편으로 기우리다가 또 가로 흔들다가하는것이 그전처사 최가에게는 의심이 가지안는모양이엇다 꺽정이가 여러두령들을 돌려보며

「여기서서 이야기할게 아니라 몰우로 들어가자」

하고 말하니

「마산니길은 파의하실람니까」

하고 김산이가 물엇다

「파의를 하든지 안튼지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하고 꺽정이가 여러두령들을 다리고 몰우 집으로 나려왓다

長城 長城郡農會

長城郡各學校 職員一同

株式會社三光商會 和信連鎖店 取締役社長 專務取締役 取締役支配人

長城社倉 宋炳一精米所

004414 長城警察署

株式會社湖南銀行長城支店 支配人 金昌榮 支配人代理 鄭鍾求

長城郡北下面藥水里 金相熙

長城郡北上面長 金福洙

朝鮮通運輸計算會社交付加盟 宇坂集配店 商友聯合運輸組 代表者 徐得雲 電話五二番

江山醫院 院長 孫正周 電話二三番

謹賀新年

三養社 長城農場 電話八番

長城驛前 鮮一拓產株式會社 電話六九番

長城驛前 金相琬 電話二八番

全南長城郡西二面龍後里 道會議員 金後生

長城郡長城面流湯里 金炯國

長城穀物組合

朝鮮運送株式會社長城代行營業所 朝鮮全南長城驛前 長城運送合資會社 電話三二番 振替京城九八〇四番

長城驛前 長城酒造株式會社 電話六五番

長城驛前 洪淳億醫院 電話五五番

長城郡南面長 千世旭

長城面事務所 職員一同

東化面事務所 職員一同

長城郡 北一面事務所 職員一同

長城郡 珍原面事務所 職員一同

長城郡珍原面善積里 金奇伯

森溪面事務所 職員一同

長城驛前 朝鮮料理 秋月館

長城驛前 朝鮮料理 青松園

湖南線長城驛前 日滿農機商會 主 李東植

引伸寫眞及一般寫眞 夜間電氣撮影 長城寫眞館 主 安秉俊

長城驛前本町通 綢緞布木 東亞商會 主 申鳳燮 電話七一番

長城驛前本町通 綢緞布木 永昌商會 主 金寬燮

長城郡長城面鈴泉里 金奎炫

長城郡南面三台里 林鍾華

長城驛前 東明印刷所

長城驛前 朝鮮生命保險長城代理店 和洋紙雜貨 金英武紙物商會 金吉洙

丸善荷物自動車部

長城郡黃龍面月坪市 東昌商會 金昌浩 電話七二番

長城月坪市 綢緞布木 和洋雜貨 中央商會

湖南線長城驛前月坪市場 鮮昌商會 金相

長城月坪市場通 永春館

長城郡森西面三桂里 大淸金山 鄭基文

長城郡森溪面社倉里 柳德烈

長城郡森溪面社倉里 白潾圭

淳昌

淳昌郡淳昌面職員一同

淳昌郡福興面職員一同

淳昌郡雙置面職員一同

淳昌郡龜林面職員一同

淳昌郡仁溪面職員一同

淳昌郡赤城面職員一同

淳昌郡東溪面職員一同

淳昌郡柳等面職員一同

淳昌郡豐山面職員一同

淳昌郡金果面職員一同

淳昌郡八德面職員一同

淳昌郡廳 郡守 殷致黃 內務課長 櫻井春吉 勸業課長 金鳳鎭 外職員一同

淳昌郡各小學校 校長外 職員一同

淳昌郡金果面茅亭里 金錫斗

淳昌郡金果面古禮里 楊宗熙

淳昌邑內 薛三采

淳昌邑內 兄弟精米所 奉殷植

淳昌警察署

淳昌 警友會

淳昌 道會議員 金英武

淳昌 道會議員 申文休

淳昌邑內 朝鮮料理 樂園

淳昌邑內 海東醫院 公醫 李海東 電話二三番

淳昌郡福興面 龜岩寺 住持 金鍾悅

淳昌郡金果面防築里 金泉酒造場 主 李鍾濩

淳昌邑內 玉泉釀造場 主 池桂宣

淳昌邑內 司法書士 林秉浩

淳昌邑內 永生藥房主 金永 電話三一番

淳昌郡雙置面雲岩里 盧秉權 盧斗煥

淳昌邑內 色絲工場 主 尹壹男

淳昌邑內 綢緞布木 尹省商店 主 尹孝燮

淳昌郡金果面 玉泉金鑛 主任 金丙熙

淳昌郡龜林面龜岩里 曺明煥

淳昌郡福興面南山里 金永奎

淳昌郡金融組合事務所 主任 崔炳武 外職員一同

淳昌郡豐山面三村里 金學圭

淳昌郡金果面茅亭里 洪桂杓

淳昌郡金果面青龍里 朴斗丙

淳昌郡福興面南山里 昔鎭台

淳昌郡福興 金融組合支所 副理事 吳柱天 外職員一同

淳昌郡雙置面金城里 吳鴻燮

淳昌郡雙置面金城里 奇燉鎬

淳昌邑內漢藥種商 張漢相

淳昌邑內漢藥種商 張漢相 趙顯彰

淳昌邑內市場通 申光商店 申光休

淳昌郡仁溪面麗泉里 楊在烈

淳昌邑內林泉釀造場 主 林吉周

淳昌邑內第一生命保險支所 宋芝萬

淳昌邑內 申仁休

淳昌邑內 東一館 主 羅啓東

鳳鳴

平南价川郡朝陽面 朝陽鑛業株式會社 朝陽鑛業事務所

平南价川郡价川邑內 白雲慶

平南价川郡价川邑內 利榮商會

平南价川郡价川邑內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 朝陽詰所 申水天

平南价川邑內 朝陽公立尋常小學校職員一同

平南价川郡价川邑內 ゴム靴商 徐丙鎭

開城群少人蔘商 大擧上京再陳情

販賣配定紛糾問題擴大

開城人蔘販賣組合에 內紛이잇서 反幹部派組合員들이 公平한 配定을 運動하고 各方面에陳情하엿다함은 旣報와갓거니와 當局에 專賣局에 陳情한後도 別로진展한 效果가업스므로 反對派組合員四十餘名이 지난九日大擧上京하야 十日에는 代表二人을다시 專賣局에보내엇고 十一日에는 全員이 京畿道廳을 訪問하고 歎願書를 提出陳情하엿다는데 그들의決議書全文은如左하다

▲決議書 昨年十一月十日我組合第五回臨時總會에서 開組合長의 提議에依하야 例年의實占의 弊害를 防止하는目的下에 各個人의從來販賣의 實績을綿密調査한後各組合員이 各各營業을 維持할수잇도록 今年度引受販賣數量을公正히 配定하는外에 方途가 업다는趣旨에依하야 配定案을可決하엿던바 前年度에比하야 約三割減少豫定의 今年度生産數量으로써 一般組合員에 同率로減少配定하는時에는 中小組合員에는打擊이莫大할것이므로 組合員의 相互親睦及共存共榮의 精神에따라中小組合員에 優先權을附與한條件을付하야 組合員中에서 被選된十名의 審査委員에 一任하엿는데 其後該審査委員은 叙上의總會의決議를 無視하고 各個人의 販賣實績에는 何等介意하지안코 審査委員에 選任된것을 一奇貨로하야 自己本位로所謂 投票制를 設置하엿스므로配定數量의 多寡는 審査委員十名의 感情如何에支配되어 其結果는 審査委員十名에는 約八萬斤 其他八十餘名의 組合員에는 僅三萬斤이라는 不當한審査配定을 決定하엿다 이에依하야 前年實績에準하야 一率로 配當하여도 約三割減少할 査定數量이 不當한 審査委員의 情實關係如何에依하야 販賣實績에準치안코 甚하여서는 前年度開城蔘業株式會社와의 取引實績에 比하더라도 最高約七割減이고 審査委員中에는 最高 實로 一千五百割增이라는 言語道斷의 結果를生하야 中小組合員에게 優先權을與한다는 前言에反하며 全産出數의 大部分이 不公平한 審査委員의獨占的橫暴에 依하야 剩專되여 我組合員의 大多數를 占하는中小業者의 全生活方途에致命的打擊이되고 또 八十餘名의 業者及 數百從業員의 生命線에 大脅威가 되에至하엿다 萬若如斯히 不合理한 配當案이 採用될時는 數百의生靈은 死活線上에서 徬徨할수밧게업는 慘狀에 沿頭되엿스므로 公正한措置를바라고客年十一月二十二日付監督官인 朝鮮總督府 專賣局 開城出張所長에게 歎願書를 提出하엿스나 何等具體的 解決策을어들수업슬뿐 아니라 오히려當局의 後援을 歎願함이 그나마 한逆効果를 招來하엿스므로 十二月十二日付 再歎願書를 提出치안을수업시 되엿스나 亦何等解決을볼수업섯스므로 此問題根本的으로 解決할 方法으로서 本組合規約에 基하야 本件審議를하여 十二月十二日付 本組合員 過半數六十三名의 連署로써 組合長에게對하야 臨時總會招集請求書를 提出하엿스나 組合長은 何等規約을 履行치 안을뿐아니라『臨時總會招集請求取消書』라는怪文書를作成하야 組合의 役員又는 職員의地位를 利用하야 臨時總會破壞工作을 敢行又는 該取消書에 捺印치안흔者에게는 販賣經由를拒否又는甚한것은 幾百斤식 現物 條件으로서 一部組合員에게對하야 懷柔策乃至買收策으로써 捺印을 求하거나又는組合員名簿를 除名한다는 威脅策으로써捺印을求하는等 言語道斷의 不法行動을 敢行하는等審査委員의 行動은一一히列擧할수업고常軌를 逸하야 到底히 良心있는 組合員으로 容認할수업는바가不少하다 我等多數組合員은 到底히 服從할수업슴은勿論 問題를 擴大하는것은 元來本意가아니오 地方的으로 圓滿히解決하려고 努力하나 逐逆하게 進行되는바이므로 不得已客年十二月二十八日付朝鮮總督府專賣局長에게 陳情書를 提出하야 公正한措置를바랏스나 아직何等解決을보지못하엿기때문에 今日에至하야서는 販賣의時期關係도잇서 甚히困難한 狀態에至하엿스므로써 再次要路當局에 歎願書를 提出하려한다 我等은今後一層決意를 强固히하야 最後圓滿解決을 보기까지 一致團結하야 左記事項을 決議하고 各自署名捺印함

昭和十四年一月 日

原皮販賣業統制

百萬圓會社設立코저一部公募

三月에府令公布後四月에創立

非常時局에 際會하야 皮革製品의 軍用需要는 急激한增加를 示하야 內地에서는 嚴者 皮革使用制限規則에 依하야 皮革資源의確保에 努力하고 軍需의充足에 支障이업도록하는 同時에 이目的의 貫徹을 期하야 皮革配給統制規則을 公布하고잇는데 全國牛皮生産額의 約半數를 占하야 此資源確保에 多大한貢獻을 하고잇는 大陸兵站部 朝鮮에잇서서도 皮革配給統制規則을 輸出入品等에 關한 臨時措置法에依한 强力的府令을 來三月頃 發布實施하기에 이르럿다 此法令發布後에同令에基하야 全朝鮮原皮販賣業者를統制하는 國策會社인朝鮮原皮販賣株式會社를客年末부터 總督府商工課에서設立計畫中이던바 最近 드디어 그發起人會를거처 資本金百萬圓、二萬株式의 公募를 하고잇는中이다 이미 發起人側에서 總株의 約半數以上을 引受하엿스므로드저도 來四月頃、統制府令의 發布直後 會社가 完成될터이라一한다 이會社의 使命은 牛、馬、羊、豚、犬等의 原皮의 取得과 그販賣及 이에附帶되는 一切事業인데 出資者는 現存原皮取扱業者와金融機關其他 當局에서 適當하다고認定한者이다 그런데現在全朝鮮에는 約二百五十餘名의 原皮取扱業者가잇는 터인데 此等業者中 統制會社에參加치못한 사람들은 今後發布되는 統制法令의規定에따라 各道知事가仲買人으로서 指定을하여주게될터인데 當局의 方針으로서는 現存業者를全部網羅하야 한사람도 失業者를 내지안토록할 터이라고한다

米穀會社設立안코 淸算取引機構改革?

投機取引의範圍縮少程度로

日本米穀會社法案에 對해서는 湯村農林局長이 지난十二日渡東하야農林省側의 意向을 무른後 殖産局과 協議하야 朝鮮側의態度를決定할것으로 보이는바總督府로서는 最初 米穀會社設立의 意見도 잇섯스나 內地에잇서서의 該法案이 議會를 通過成立한다하여도 여러가지 事情으로 同種會社의 設立은 必要치안타는意見이有力化하야 結局現在의 淸算取引機構를 改革하야投機的取引의 範圍를 縮少하는程度로 內地側과 步調를 마추는데끄칠것으로 보이게되엇다 그러나農林殖産兩局이 모두 極力言明을 避하고잇다한다

取引所側意嚮

各米取存續可能主張

新格付는前年대로

(米取聯合會)

全朝鮮米取聯合會의 受渡米格付協議會는 十日朝取 樓上에서 開催하얏는데 四月限부터 九月限에至한 格付는 大體前年대로하고 그旨를 總督府에 申請키로되엇다 그리고 右格付協議後 日本米穀會社案을 中心으로 總督府當局과 座談的으로 意見을 交換하얏는데 當局이

一、日本米穀會社案에 對한朝鮮의成案은 아직되지안코 朝鮮側의 態度는 未定이다

이에對하야 取引所側은 大體如左한 意見을 開陳하엿다

一、日本米穀會社가 誕生되는境遇에 全朝鮮一取引所(京城)로 하는데 大體異議업다 그러나 內地米取와달러 朝鮮內의 各米取는 自營이 可能하야當分間現狀대로 存續하는데도 異議는업다即全朝鮮一米取에對하야地方實物市場의 形態를取하던取引員의 賠償은 相當額을 要求한다

米穀會社案 提出延期要望

全國米商聯에서

【東京電話通信】日本米穀會社案에對한 米穀商의 去就에對하야는賛否兩論이잇서 注目되고잇든바 全國米穀商業組合聯合會에서는 十日午前十一時부터 深川正米市場에서 幹事會를 開催하고 會社案에對하야 아직考慮할 餘地가잇다하야 今議會提出延期를 要望하는旨를 强調한決議를可決하엿다

魚粉統制

朝鮮本位로是正

油肥聯에서는 十一日午前十時부터 水産會館에서 委員會를開催하고 魚粉輸出統制에 關한件을 協議하는데 右는 魚粉의輸出統制에잇서서 從來內地本位의 統制를 甘受하고잇는데 對하야 新年度부터 朝鮮도 當局의保護政策의 恩澤을밧게되엿스므로 斷然內地側의 橫暴을 是正시키는 具體策을 協議하기로되엿다 即 魚粉의 輸出實績에 잇서서는 朝鮮은 七割을占하고 內地는 僅僅三割에 不過하나 本年度에는 朝鮮에 補助가업스므로 內地追隨統制가 實施되어 內地追隨는 朝鮮에 諸般의制約을주고잇는實情으로보아서 도리어 內地가朝鮮에 從屬하는것이 至當할것이므로 新年度는 朝鮮本位로取할것이라는 意見이有力하다

그리고油肥聯에서는 本日의協議結果에基하야 幹部가 渡東하야 中央과折衝하기로 되어잇서 內鮮間의 魚粉統制協議는 十六日에 開催될豫定이라하는바 朝鮮의希望은 大體如左하다한다

一、現在의 內地本位의 輸出統制會社의 本社를 朝鮮으로옴기고 東京에 支社를設立하야 內鮮一體로 輸出統制를行할

二、萬若 內地側이 이에應諾치 안을境遇는 朝鮮獨自의 輸出統制會社를 設立할

石炭公定價格協議

石炭의改訂最高價格은 其他의物價委員會의咨申에基하야 各道에 잇서서 公定하기로되엇스므로 總督府에서는 十一日午前 各道物價擔任官의 協議會를 開催하고 總督府側의 方針을說明하는同時에 詳細協議하엿다 한다

預金四割三分增 貸出二割四分增

歲末京城組銀狀況

手形交換所調査＝客年末의 京城組銀의 預金貸出狀況은 預金二億三千七百六十五萬五千圓、貸出二億三千七百二萬三千圓으로서 顯然한 預金增大가注目된다 即 預金額은 十二月中旬計에 比하야 一千四百四十萬圓이 增加되고前年同期에 比較하면 實로七千二百二十九萬七千圓 (四割三分强)의 增大에當한一方 貸出은中旬計에 比하면 겨우十萬四千圓의微增이고 前年同期에比하면七千五百六十九萬三千圓 (二割四分强)이 增大되엇는바 預金貸出別前年比較는 如左하다 (單位千圓)

◇預金	十三年末	前年末比較增減(△)
定期	二一〇、三一七	七五、一二〇
當座	五一、六〇四	一三、一三六
特當	二七、七六〇	二二、三七八
通知	一六、七五三	一、七七九
諸預	一七、〇九八	八、四四四
合計	三二三、六五五	一四、三九七
◇貸出		
證書貸	二〇、一六七	六五
手形貸	三六四、八四三	八二、四四七
當座貸	九、五三二	一三、四七七
割手	二八、五三三	△一、〇八九
荷爲替	四、四三九	△一、五四五
合計	三〇七、〇二三	七五、六九三

不渡手形減少

十二月中의 京城手形交換所에 잇서서의 不渡手形은 小切手、約手、爲手를合하야 人員二千一名 枚數六十一枚 此金額一萬三千八百八十九圓으로 人員은五名 枚數는十五枚 金額三萬二千五百七十二圓의 各各減少이라한다

期限前拂戾의 金組預金利子

嚴重團束通牒

金融組合의 定期預金 又는据置貯金을 契約期間滿了前에 拂戾할境遇에 其利息을 當該預金의 契約利率에依하야 拂戾日까지의 日割計算으로써 支拂을하는者가잇는 模樣이나 如斯한定期預金 又는 据置預金의 利率을 特히 高率로한 趣旨에違背하는것이므로 總督府理財課에서는 이런取扱은 今後 嚴禁시키는同時에 이런境遇에는 貯蓄預金(半月利計算)以下의 附利를시키도록하라고 지난十日 各道에 通牒을發하엿다

朝鮮化學工業會社

順川工場八月完成

昨年八月着工한 朝鮮化學工業의平南順川에잇서서의 肥料石膏製造工場은 本年三月完成의豫定이던바 器材關係로 遲延되어結局今年八月完成의 豫定으로九月부터 操業을開始하게될모양이다 製造能力은 年二萬톤이나 第一期는 一萬톤의豫定이라한다

經濟界消息

○韓萬熙氏商議當選＝京城商工會議所의議員吳重默氏辭任에依한 補選은 十日午後四時부터 選擧會를 開催한結果 信一製粉所 (代表者韓萬熙氏)가當選되엇다

鮮銀券發行高 三億圓臺割

逐日減退되는狀況

舊臘三億三千萬圓臺突破의 新記錄을내인 鮮銀券發行高는 逐減에入하야 十日繰越에는 三億圓大臺割인 二億九千八百萬圓臺로 縮少되더니 十一日繰越도續減되어 二億九千六百萬圓臺이엇다

米移出極度不振 精米界重大異變

共販으로正租高、內地선上値抑壓

製玄業으로轉向者續出

新米穀年度初以來로 不振狀態에陷한 朝鮮米의移出은 一月에入하여서는 一層萎縮되여 마치 夏枯閑散期에入한感을주어 白米의移出은 全혀絶望的現象을呈하고잇다 이에原因을 들추어보면 共販制로因한 正租高와 內地의 上値抑壓等으로 採算이맛지안는 重大原因을 들수잇스나 最近에 注目되는것은 白米移出減退의重因으로서 如左한點을 들수잇다 即

一、白米移出의大宗을占하는 大阪에서 朝鮮袋白米의上値制限

二、消費地에서 混砂米를禁止하고 無砂米、胚芽米를奬勵한結果 精白에잇서서는 原料粒選(夾雜物除去)에 多大한 日數와 經費를 要하며 精米技術及 設備에 重大變革을 招來하고잇다 또今年부터는 目黑米混合率을 制限하기로되여 白米爲精後의粒選難은 莫甚하야 精白米業의採算은 一層困難하게되엇다

三、産地正租高

四、政府의買上滿額으로因한 原料米의難詰

以上과가튼 實情으로 最近精白米工場은 모두가 休業狀態이며 精米業者는 一齊히悲鳴을 울리고잇스며 製玄業으로 轉向하는者도 續出되어 精米界에 重大異變이 發生하게되엇다

樹苗、木炭、木材로 北支開發에協力

東亞新秩序의 建設이라는 大理想下에 日滿支의經濟『블럭』은 漸次緊密하게 促成되여가고잇는此際 北支의經濟的開發에잇서서 大陸의兵站基地인 朝鮮의 協力은 當局의重大한課題로되여잇다 이에따라 總督府에서는鑛、農、商、工業乃至金融等 各般에 亘한 經濟的開發에對하야 協力하고저 方今各局課에서 愼重硏究中인데 其中農林局林政課에서는 北支林業開發에對하야 如左히 樹苗、木炭、木材等의協力을 하기로 立案을끗내엇다 即

一、北支에는 山林資源이 大端貧弱함에鑑하야 今後積極的造林事業이 着手되여야할 現狀이므로 各種의樹苗를 朝鮮에서供給하야 北支造林을 速成토록할것

二、北支에는 最近內地人과朝鮮人의 進出이激甚하여짐에따라 木炭의 需要가 顯著히 增加되고잇는바 朝鮮의 每年木炭生産量 二千五百萬貫中 朝鮮內消費量이二千四百萬貫이므로 結局現在에도 約百萬貫式은 內地等으로 移輸出을하고잇는터이나 客年木炭의生産販賣를 合理的으로 統制할目的으로 木炭協會가出現되여잇스니만치 今後 朝鮮內의 木炭生産은 非常한 發展을 보게될것이다 이增産되는 木炭을 不足을告하고잇는 北支에積極輸出하여 주는것이다

三、北支에는 最近 各般의建設事業에 木材가 非常히 需要되는데 北支에서 生産하는 木材로서는 到底히 이를 補足할수업는 現狀인데 朝鮮에서도用材不足이어서 只今當場에는 北支의 不足木材를 補充하여줄수업는狀態에잇스나 그러나 今年度부터 百萬町步二千百萬圓의 用材林二十個年計畫이 現實되엿스므로 今後可能한限 北支에 木材輸出을 하도록 努力하기로한다

輸出工藝協會

十七日創立總會

新春早早 朝鮮輸出工藝協會의設立에 關하야서는 十日午後二時부터 朝鮮貿易協會에서 發起人會를 開催한結果 來十七日午後二時부터 京城商工會議所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키로決定하얏다 發起人側은 會員을募集키爲하야 全朝鮮商工會議所 各道知事에게 會員加入에對하야 斡旋을依賴하고 會員의 應募에 萍出키로되엇다한다

朝汽의朝鮮商船

買收再次暗礁

朝鮮汽船의 釜山에本社를가진 朝鮮商船 買收談은 昨秋來道當局의斡旋에依하야 兩社間에折衝中이던바 讓渡米에 이르러 二十一萬圓으로 買收하기로 兩社幹部의意見이一致 新年에들어와 買收手續을할 豫定이던바 又復朝鮮商船이 假契約을破棄하야 再次暗礁에逢着하게되어 이에對한 道當局의裁斷이 注目된다한다

○商銀定時總會＝商銀에서는 一月二十五日午前十一時부터 第六十五期定時總會를 開催 左의件을 附議한다

一、第六十五期決算、損益承認의件

二、同上利益金分配案承認의件

三、監査役富田直治氏金正浩氏任期滿了改選의件

寸鐵

▲…前任稅務監督局長中小財政金으로 融通해주기를 朝鮮商議에서 要望햇다든데 歸於水泡

▼…公共性을 좀더發揮햇드면 조왓슬것을……

▼不正事件을 暴露한中央無盡의 重役總改選에 新社長으로官界에서 나오리라고

▼…古庄京城稅務監督局長 西崎鐵道局理事等이 物望에올으는 모양인데 누가되든지間에 아마 아마구다리(天降)에는 틀님업슬것

▼…『아마구다리』를 問題삼어지만 이러한일이생기니無可奈何

今日의市勢 (十一日)

株式 鐘新先驅 昂騰

前場鐘新高 今朝는惡材一巡으로 人氣安定을보아 東新一低인一二三圓七 鐘紡은一四四圓九鐘新은 一圓五高인 七四圓丁에寄付後 鐘新에買氣가 集中되어四圓八의 高價를로後結局東新一二三圓三 鐘紡一四五圓丁鐘新七四圓五에區區裏大引

後場續堅 後場은 東新一高인 百二十三圓四、鐘紡七低인 百四十四圓三에 區區寄付後 東新도少返되고 鐘紡은 繼續하야堅調를 呈하엿다

鐘新高로好勢 年初以來 國內的으로는 政局不安、國外的으로는 英米의對日報復決議、日蘇漁業條約問題의再燃等으로 極端한萎縮에빠져잇던 市場人氣는 昨今에이르러 겨우 惡材一巡도되며부터 漸次活力을恢復하야 一般的 弱人氣의裏面이 나오게되엇다 特히鐘新은 低價位에잇스니만큼 只今까지傍觀하고잇던側도 買付하기 시작하고

期米 依然不變 閑散

前場不變 今朝阪地先限三十六圓十八錢인 昨止同樣의報를 接하고 當限은 三十三圓八十二錢인 一丁低로 先限은三十三圓八十五錢인 昨止同樣으로 寄付後 十六錢으로 小弛하엿다가 二十錢으로 小戾止場함을伴하야 二節八十四錢을最低로 結局八十六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同調 後場은 三十三圓八十六錢인 不變裡에 始場後 二、三、四節은 모두八十六錢五節은八十五錢이엇다

保勢로終始! 新甫三月限은 客年末의 政府米의買上成績 良好로 多少好感되엇섯스나 高價에는 買物의減衰하야 更伸하지못하고 反히低落하야 七十九錢까지의 十八丁低價를 示한後 또한下涯狀態로八十錢臺로 返戾하야 因而膠着保勢로 終始할뿐이다 不遠한時日에發表될 實收額의 增減如何를 따라 一波紋을 이르킬모양인데 昨今一般의 豫測하는바에 依하면엇어도 百萬石은 減少될것이라는說이 有하다 此가事實化하면 容易치못할모양으로 어느時期까지 繼續할모양?

市場六感

株…新甫以來로 市場은貿易餘地가 좃치럼 人氣가壓倒的이어서 賣氣의容易든니◆惡材一巡으로 그逆이나와今朝는繼續하야弱調◆特히只今까지 東新의不安人氣로抑壓되어잇든雜株도 東新의下止에依하야 一段活氣를띄엿스며◆其中에도 鐘新의好況持續은全

米…新春發會六日만에 市場的人氣를 明朗化시키는데多大한功이잇는모양 勢의步幅은 겨우 十六、七丁에不過 이만하면 今年米價大勢의 如何를可知◆그야 淸算뿐이라 正米市勢도 連三日一錢變動도업시 膠着할뿐◆正米의 그自體도 最高公定米價를 無視하지 못하는만큼 淸算도亦然◆明正兩界가 如是할진대 正米師나 定期師나 모두죽을지경◆모든 經濟事情으로보아서 차라리 休戰이可宜?

國債釘付

(東京電話同盟)

新規材料가업서 場面은繼續하야 無活氣로 長期債物이 모두술러 釘付되고 外債도 米貨五分半、六分半이 모두二十錢高를 告하엿슬뿐이엇다

▲甲號五分一〇三、五〇 ▲一九年物一〇三、一〇 ▲佛貨四分一九八、五〇 ▲米五分三七、〇〇

賣込의反動?

昨日 後場에는 惡材라할만한 惡材는 一旦出盡되어 只今까지 賣込하고잇던 東新을 先驅로하야 反動이나와 奔騰을보앗는데 今朝는 그뒤를이어 東新에는 곳高價警戒의 整理賣가出現하엿스나 鐘新은 繼續하야活況을 呈하고 이鐘新高가 採算株全般에 活氣를注入하고잇는모양이엇다 이미 惡材는一巡된感이잇서 好材料만잇기만하면 곳敏感하게反應하려는傾向도 잇서 殊히鐘制를 取하고잇고 또株 不足傾向도 市勢의 上向을도와 겨우市勢는 春高一騰을 바랄수 잇게되엇다고하나 果如何?

今日財界 (十一日)

◆米 (單位錢)	今日後止	比前日後止
仁川期米先限	三三、八五	不變
大阪期米先限	三六、一八	不變
京城白米百斤(二等)	三三、〇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十六、九〇	不變
稀業 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十錢)	今日後止	比前日後止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綿絲	[illegible]	[illegible]
棉花	[illegible]	[illegible]
人絹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illegible]

正米側의態度

大體가强腦뿐

昨年秋收期以來로 農家又는共販의態度가 絕對平均賣의 方針으로 動搖하야 米價의昂騰을阻止하고잇서 正米側의態度가 大體强腦를 示할뿐이다 勿論前年의實收에比하야 內鮮五百萬石의 減收를示한 今年米作의 第二回豫想으로보드라도 需給難의憂慮가업지아니한데다가 實收高의又復 百萬石의減收를 豫想하는今日인만치 數量으로보아서의 絕對買方針을 捨할수업고 又는諸物價에 比하야 割低인 米價이라 더욱 賣惜成을 하기 難할것갓고 消費量에잇서서도 事變이 依然繼續되는 此際이라 例年보다 차라리 增加될지언정 減少될理가 업슬것이다 그래서朝鮮總督府에서는 産米增殖을計畫하는等 四圍가 無制限材料임을보면 到底히 頹價를 버릴수가업다 그러나 政府의政策이 絕對로米價를 抑壓하고잇스므로 昂騰도 [illegible] 는때에는 多少昂騰을 示할모양이다 그러나 買方그自身이 스스로 高價일수록 警戒함을 보아서그다지큰 期待는 가질수가업고結局은 春暖期의 軟質米의賣放으로 一時正米賣勢의 威脅을受하야 어느程度까지의 反落을 示하지안흘가한 商談도 업지아니하다 勿論定米收道의 市勢가 한번도展開되지안엇스므로 早晩間一落이잇슬것도갓고 又는 朝鮮米의 移出管理의 實施를따라 低落의一幕을見하기 十常八、九일것도갓다 果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當限 中限 先限 ◇買方

[illegible]

正米 無刺戟의 寂寥

京城膠着 內地人注杜絕로 買方이 買薄하고 所持側은唐慌한 비치보이나 低價에는 容易치 押目買氣濃在로 下支되여 前價同樣으로 膠着이엇다 穀良三等三三、六〇 四等三三、四〇 一等白米一四、〇〇

仁川保合 定期의保合으로 아모런刺戟材料도업서 依然한小口的必需去來가 多少잇슬뿐이여서 唱價도 不變이엇다 ㊣穀良三等三三、六〇 四等三三、四〇 ㊣無砂米一三、八〇 ㊣一等白米一三、六五

釜山不動 慶南穀物協會市勢 大體로九州米는 大阪方面으로 進出하야 朝鮮米에 比하야 割低인 關係上 이에 買氣集中되고 朝鮮米는 等閑視되여 地場의 內地入注는 此渡도 全혀 바랄수가업서 當用側의 小口的去來뿐으로 閑散場面을 持續하야 市勢도 不動이엇다 ㊣銀坊主三等三三、七五 四等三三、五五 一等白米一三、五三

大邱釘付 繼續하야 內地入注는 多少잇스나 依然한 指價注文이므로 積極味가업서 場面은 閑散을 持續하야 淸算의膠着됨을 보고 市勢도 刺戟材料待로 釘付이엇다 ㊣穀良三等三三、九〇 四等三三、一〇 一等白米一三、二五

群山同調 廻米가二十一輛이나잇서 各地淸算은弱調이나 朝米小口浮動米도 兼하야 人氣不昻인때에 內地入注는 依然한指價低로 到底히採算이 맛지안허買氣萎縮되고 市勢도 昨日同調이엇다 ㊣銀坊主三等三三、七〇 四等三三、五〇 一等白米一三、七〇

木浦不變 廻米가十三輛이나잇서 市中倉庫는 滿庫狀態이어서 多少의賣物이보이나 內地入注의採算이맛지안허 買方은消極的이고 應募準備物이 旺盛할것을豫想하고 所持側도低價에는 賣치안허 不透明商狀을呈하엿다 ㊣銀坊主三等三三、六〇 四等三三、四〇 一等白米一四、〇〇

仁川米豆取引所取引員 ○桑野取引所 電話長三二九番

海外經濟 (十日)

[illegible]

銀行券 (十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 手形交換

◆京城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鰯油粕 麥粉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木浦期米 ◆群山期米 ◆大邱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各地期米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朝取主要株取組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生絲

◆橫濱生絲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

京城物價 (十一日)

▲白米 ▲木綿類 ▲綿絲 ▲炭類 ▲石油 ▲砂糖 ▲洋灰 ▲鐵物 ▲木材 ▲牛皮 ▲染料 ▲紙類 ▲塗料 [illegible]

三和商會鉱業部 重石 水鉛 京城南大門通一丁目 電本七〇〇六

仁川海岸通三丁目 趙俊鎬取引店 期米

京城 仁川 金益證券 益康